

시민문화재단 | 서울문화재단



<커뮤니티 댄스 랩> 연구 사업

춤추는 시민을 기록하다

본 보고서를 「2015년 서울댄스프로젝트 연구기록집」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기록자

- * 김유진 (PM)
- * 현승인
- * 이초영

사진

- * Pop Con (정경일) 외

목차

여는 글 : 왜 기록하는가

화보 : 서울 시민이 말한다 “춤이란, 몸이란”

첫 번째 기록). 서울댄스프로젝트가 걸어온 길

- 숫자로 보다
- 인간적 접촉을 디자인하는 사업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두 번째 기록). 2015년 사업 현장에서

- 춤바람 커뮤니티 | 몸을 살리는 움직임
- 춤단 | 자유를 선물하다
- 커뮤니티 댄스 랩 | 춤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실험실
- 체어 댄스 | 하루 3분, 춤을 춥시다
- 서울무도회 | 시민의 곁에서

세 번째 기록). 지평을 넓히기 위한 진단과 모색

- 서울댄스프로젝트의 몇 가지 이슈
- FGI | 시민참여 예술에 관한 확장된 논의

닫는 글 : 더 나은 삶을 향한 사회적 기획

여는 글
왜 기록하는가

하나의 사소한 경험담으로 시작한다

얼마 전, 도심지 한가운데 위치한 시민공원에 대학생들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다. 화려한 건축물 주변으로 목적 없이 쉴 수 있는 작은 공터에 여러 개의 의자, 공연하고 용기종기 모일 수 있는 평상 등이 준비되어 있다. 지역 스토리 발굴을 위해 하루 종일 걸었던 우리는 그 평상에 둥그렇게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피로했고 쾌청한 날이었으며 평상마루가 잠을 부를 만큼 편안했다. 그래서 잠시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없이 펼쳐진 하늘의 노을 지는 풍경이 눈에 담겼고 오랜만에 평화로운 기분을 느꼈다. 이때 반듯하게 옷을 차려입은 젊은 남자분이 세그웨이를 몰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그분이 정중하고 세련된 어조로 말씀을 건네셨다.

“시민님, 자유롭게 행동하셔도 되는데 눕지는 말아주세요.”

이 말은 몹시 사람을 당황하게 하였다. 잘못된 기분이 들어서이기도 했지만, 그분과 내가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에 괴리가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시민공원에서 몸을 누여 하늘을 올려다보는 행동은 시민이 취할 자유로운 행동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시민다운 자유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일컫는 것일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날 저녁, 공원은 한산한 편이었고 사람들은 여기저기 늘어진 상태로 앉아 있었고 평상에는 우리만 있었다. 널따란 면적의 일부를 차지하고 눕는 여유를 누리는 것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잔디밭들이 떠올랐다. 시민을 위해 조성된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푯말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지금은 한강공원 잔디밭에 삼삼오오 텐트를 치고 앉거나 누워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시청 앞 광장 같은 도심지 잔디밭, 시내 한가운데 자리한 대형 플라자 근처의 시민공원은 한강공원과 다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시민공간에서 시민의 자유란 무엇인가. 시민의 자유는 누가 허락하는 것일까? 공원 관리소가 시민의 자유를 정하고 공표하는 것일까? 시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정하는 것일까? 그 공원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협의를 하는 것일까? 협의해야 한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

몸을 일으켜 세워 대학생들의 이야기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한창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또 다른 세그웨이 한 대가 다가왔고 우리가 어디서 온 단체냐 물어오셨다. 질문의 의도를 되묻자 혹시 종교 집회 같은 것이면 여기 모여계실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는 국가기관의 교육 연수 프로그램 참여자들이라 답변하자 그분은 돌아가셨다.

그분이 떠나고 나서 상상을 해보았다. 우리가 만일 개개인이 관심사에 따라 모인, 어떤 기관에서도 신원을 보증 받을 수 없는, 그냥 정체불명의 예술 작업 집단이었으면 어땠을까.

춤 자유로의 질적 도약을 꿈꾼다

도심 시민공원에서의 일화는 현재 우리 사회가 ‘내 의도대로 움직일 자유’를 포함한 시민의 권리,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의무를 포함한 시민의 책임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인문과 예술을 쉬이 접해보지 못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서로 피해 끼치지 않기 위한 사람들 사이의 약속 정도로 ‘얼핏’ 이해할 가능성이 크다. 마치 법이나 조직, 시설의 규칙만 잘 지키면 될 것처럼 단순명료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 관념과는 달리 시민의 권리와 의무란 현실 속의 매우 다양한 관계 속에 얽혀 있어 실제로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이 많이 일어난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서울댄스프로젝트도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고민한다. 이 프로젝트는 춤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이 춤추는데 ‘참여할 권리’, 춤추기 때문에 ‘자유로운 권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아니, 보다 나아가면 서울댄스프로젝트뿐 아니라 현재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시민 참여적인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시민이 ‘OO할 권리’에 관한 실험들이다. 또한, 자유롭게 OO하기 때문에 ‘OO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에 관한 고민이기도 하다.

이럴데면, 서울댄스프로젝트팀이 서울 곳곳에서 <게릴라춤>을 벌일 때 주요하게 부딪치는 문제가 민원이라고 들었다. 시민이 춤단이 되어 한강 시민 공원에서 한 판 춤을 벌이고 길을 열면서 다른 시민들을 초청할 때 텐트 치고 잔디밭에서 낮잠을 자던 시민은 소음공해라며 경찰을 부르기도 한다. 경찰은 분명히 공원에 미리 신고도 되고 허락된 행사임에도 ‘일단’ 출동을 하고 ‘이유 불문’ 춤을 제지한다. 쉽게 말하자면 춤은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추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일을 겪은 시민은 공공장소가 춤에 대해 관용적이지 않고 공공성이 춤과 거리가 멀다고 인식하게 될 것이다. 계획된 강이나 공연, 춤학원이나 교습소처럼 목적화된 공간 또는 내 방과 같이 사유화된 공간에서만 춤출 자유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며 개별적으로 분리된 공간과 시간 속으로 숨어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춤단이 춤추는 현장으로 출동했던 기록팀은 이렇게 경직되고 딱딱한 공공성이란 개념이 파괴되는 순간을 목격했다. 발걸음을 멈추고 났이 나가 구경하던 넥타이와 까만 구두의 아저씨,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조곤조곤 춤추시는 할머니, 기록팀에게 말을 붙이며 시민 춤단에 흥미를 보이던 여고생 등.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춤에 본능적으로 반응하였다. 기록팀은 현장을 목격한 후 춤은 왜 관리되고 있을까란 질문에 부딪쳤다. 더 구체적으로는 왜 ‘춤추는 몸’을 일정 장소, 일정 시간, 일정 목적, 일정 관계 속에서 가두어 두고 있을까란 질문이다.

이해를 위해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 어릴 적, 북한은 주민들이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는 ‘후진’ 나라라고 배웠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민주 국가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시험에도 나왔었다. 처음 이 개념을 알게 되었을 때 남한에서는 마음껏 이사 다닐 수 있다는 생각에 모호하지만 뿌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다.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시민의 자유가 그렇듯 거주 이전의 자유도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주어졌던 것이 아니다. 자유의 범위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힘센 자연과 권력, 구속적인 사회적 습속의 제약을 헤치고 누구나 마음껏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당연하게 상상할 수 있었던 문명적 능력이 자유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춤은 몸의 자화상이다

이 기록집을 만들 기회를 준 <커뮤니티 댄스 랩> 연구 프로젝트는 단순히 사업의 행정적 결과물을 가시화하는 방식의 성과 보고서를 원치 않았다. 함께 춤출 자유를 다양한 방식으로 상상하는 것. 이것이 서울댄스프로젝트에 초대받은 전담예술가, 댄스 랩 연구자들에게 요청된 주제라고 생각한다.

서울댄스프로젝트 연구를 위해 기록팀이 1년간 현장을 쫓아다니며 사업의 윤곽을 더듬어 가는 동안 ‘시민에게 춤출 자유가 왜 필요한가?’란 질문이 차츰 부조처럼 떠오르는 경험을 하였다. 춤을 대하는 태도는 이 사회가 몸을 관리하는 방식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한국에서 몸은 가려진 주제이다. 사람들은 전 생애에 걸쳐 자신의 몸을 그대로 직면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한국인의 몸은 쓸모가 있어야 하는 자원으로 스스로 관리하여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는 증거품에 지나지 않는다.

고도성장과 개발이 고조되던 시절에 한국인의 몸은 사회 발전을 위해서라면 역할에 부합해야 하며 기꺼이 희생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 시절 남성들에게 몸은 남자의 능력을 증명하고 경쟁하기 위한 도구로 좋은 엔진 오일을 넣는 자동차처럼 보양식을 섭취해줘야 하는 것이었다. 나라는 체력이 국력이라며 일하기 위한 지구력을 몸의 핵심 역량으로 간주하기도 했다. 반면, 여성의 몸은 단정한 옷매무새와 조신한 걸음걸이를 하도록 강제되었다. 어린 시절 고무줄놀이에 열을 올리던 여학생들도 중학교를 가면 교복 치마를 입고 뛰지 말라는 제도 교육의 영향을 받았다. 덕택에 남학교 운동장과 달리 여학교 운동장은 텅텅 비어 있었다.

1990년대를 지나 문화적 소비가 점차 중요해지면서 몸은 보여주기 위한 아름다움의 영역으로 이동하였다. 헬스장에서 조각 같은 몸을 만들어 인기인이 되는 ‘몸짱’의 시대가 열렸다. 그와 함께 헬스나 다이어트,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이 삶의 질을 높이는 명목으로 일상 영역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사회 분위기가 자유연애와 섹스어필에 관대해지면서 몸은 마치 자유를 얻은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하드웨어로서의 몸에 대한 관심 영역 바깥으로 탈주하는 움직임은 아니었다. 몸은 여전히 성능 유지를 위해 관리되는 기계, 혹은 좋은 옷과 액세서리처럼 자랑하기 위한 명품 몸매의 위치에 있다.

여기서 잠깐 읽기를 멈추고 내 몸을 한 번 훑어보았으면 한다. 내가 취하는 몸짓을 유심히 응시해 보았으면 한다. 나의 몸짓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어색하지는 않은가? 급히 걷고 있는 걸음새나 침대에 달라붙은 등짝이나 스마트폰에 빠져들 것처럼 휘어진 거북목이나 의식하지 않아도 자판 위의 글자를 찾아 날아다니는 손가락이 낫설지는 않은가? 또는 나의 쿣대와 새끼발가락 발톱과 튼실한 허벅지 중 더 쓸모 있는 부위를 가름해서 따질 수 있을

까?

실은 내 몸은 그 어느 한 부위만을 떼어내어 어떤 것이 더 은밀하고 더 생산적이고 더 우아한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몸의 금기에 혼용되면서 우리는 몸을 잊게 된다. 오로지 몸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며 몸이 곧 나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 몸은 내가 아니라 도구이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쥐고 도려내어 조합하고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물건처럼 취급하기까지 한다.

몸을 관념이나 정신에 비해 천시하는 습관은 마치 오래된 가구가 세월에 패인 흔적처럼 남아서 우리의 무의식을 장악하고 있다. 이를테면, 우리는 무용수가 몸‘만’으로 춤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용수들은 마치 글쟁이가 자신의 삶과 존재를 노출하기 위해 언어를 부리듯, 몸으로 자신의 삶을 묘사하고 철학을 하는 이들이다. 무용수에 대한 이해는 그들의 몸의 재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표현하는 몸의 언어를 듣고자 할 때 획득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 몸을 듣고자 함은 나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는 일처럼 예술적인 작업일 수밖에 없다. 즉 춤일 수밖에 없다. 낯선 나의 몸을 보는 익숙한 나의 시선은 습관적인 자아상과 충돌하여 문득, 몸에 대한 관념에 균열을 낸다. 내 몸을 듣듯이 남의 몸을 들으려 하면 서로의 시선의 부딪침 속에서 날 것의 일체감이 생겨난다. 그렇게 움직임은 저절로 집단무가 된다.

돌아봄과 소통의 춤을 향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사회에서, 미래를 위한 발전적 노력이란 삶의 동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의미를 찾지 못해 자살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청년들도 야심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되었다. 때문에 앞만 보고 질주하던 사회는 급작스럽게 지금, 여기에 놓여있는 나를 돌아보는 작업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성찰과 느낌의 미학이 예찬 받고 인문학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면서 현인들의 강의를 오아시스처럼 찾아다니는 소비 트렌드도 생겨났다. 그러나 지금, 여기를 사유하기 위해서는 머리만으로는 어렵다. 현재를 겪어내는 것은 몸이기 때문이다.

이 기록집을 읽는 여러분은 몸에서 출발하여 관계로, 관계에서 소통을 통한 자유로 이어지는 일련의 물음들 즉, 춤의 사회적 실험 과정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돌아봄과 소통의 춤을 누군가는 커뮤니티 댄스 장르라고 부르며 서울댄스프로젝트 역시 유행의 한 흐름 정도라고 여길 수도 있겠다. 하지만 장르의 명명(命名)에 집착하고 싶지는 않다. 기록집이 이 실험에 동참하여 펼쳐 보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선의 삶은 무엇이며 그 지향 위에서 예술의 역할은 무엇인가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기록집은 실패와 성공 여부를 따지기보다 실험의 속살을 파고드는 이야기를 남기려 노력할 것이다.

화보

서울 시민이 말한다.
"춤이란, 몸이란"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2015년 춤바람 커뮤니티와 춤단에 참여한 시민춤꾼들에게 물었습니다. ‘몸’은 무엇이고, ‘춤’은 무엇일까요? 춤을 사랑하는 만큼 다양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답변한 사람들이 철학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하였습니다. 춤을 사랑하고 몸으로 철학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 보시겠어요?

몸이란?

자기반성 유형

그동안 널 너무 몰라줬구나. 미안해, 몸아.

- 늘 머리만 훈련하고 연습하고 살아왔는데, 몸은 뽕뽕 간혀 있었어요.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 자꾸자꾸 배우고 연습하고 즐기고 싶어요.
- 몸에 의해 살고 있으면서 몸이란 존재를 잊고 살다가 뭔가 탈이 나야 그때서야 몸을 인식한다. 몸이 뭔지 잘 모르겠다. 잘 인식되지도 인식할 필요도 못 느꼈다.
- 태어날 때부터 내 것이었지만, 내 맘대로 생각대로 온전히 사용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막 몸을 사용한 나를 반성합니다. (ㅋㅋ) 춤을 추고부터 머리 끝부터 손끝, 발끝까지 온 정신을 다해 내 몸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네요!! 나는 춤추는 나의 몸을 사랑합니다!

밀당 유형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몸~

- 애증의 존재
-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것.
-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존재.
-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내 몸도 해당되는 것. 그래도 노력하면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는 것 세상을 휘젓고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감사한 내 몸♥

유레카 유형

아니, 내 몸이 이렇게나 대단했다니!

- 나에게 이렇게 많은 뼈와 근육이 있었다니! 그런데도 너희들을 너무 외롭게 했구나. 앞으로 잘 지내보자♡
- 허약한 저에게 몸은 항상 저를 가로막는 짐이었어요. 그런데 춤을 추고 그 하나하나를 느껴보려 하기 시작하자,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되었어요. 몸은 저에게 저를 표현하게 하는 하나의 장치이자 저로 하여금 미치도록 춤추게 하는 저도 모르는 하나의 저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아. 기뻐요. 결론은 몸은 저의 걱정과 고뇌로부터 조금은 멀어지게 춤출 수 있게 하는 장치예요.

동양철학 유형

물은 물이요, 몸은 몸이로다.

- 몸은 나 전체이다. 동시에 '나'가 아니다. 몸은 그래도 '나'다. 몸의 감각이 전부가 아니다.
- 만져지는 나와 만질 수 없는 내가 대화하는 곳.
- 수만 가지가 모여 하나가 되는 것.
- 우주의 통로이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표현의 자유를 표현하는 곳.
- 내가 느끼고 있는, 내가 움직여도 범위보다 훨씬 무한한 움직임과 가능성을 가진 유기체

그리스 자연철학 유형

우리의 몸은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 70%의 물, 탄소와 질소, 약간의 희귀금속들의 유기적 조합. 동시에 힘을 담는 그릇. 조합의 연결되는 힘. 몸은 힘으로 묶여있고, 힘을 묶고 있는 그릇이다.
- 내가 가진 전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도 하다. 몸과 정신 (혹은 마음)이 우리를 이루는 전부이며, 비율은 그때그때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부인지, 아무것도 아닌지도 순간의 비율에 의한 차이인 것)
- 하나의 심장으로부터 에너지가 뻗어가는 것. 하나로부터 전체로. 전체에서부터 하나로. 두 과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몸이다.

기타

- 술 취하면 첫 번째 반응하는 곳.
- 점점 힘이 빠지고 예전 같지 않다. 미지의 대상. 더 많이 알고 싶었지만 건강 외에는 몸에 대해 잘 몰라요.

춤이란?

물아일체 유형

자연과 내 몸이 하나이니 춤이라고 다르겠는가?

- 음악이 몸을 관통할 때 진동하는 것.
- 우주의 파동을 느끼는 것.
- 나의 안과 밖을 연결하는 것.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내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가져와 받아들이는 것.

무아지경 유형

무아의 경지에 도달하였을 때 춤의 에너지는 극대화된다!

- 춤이란 순간에 내가 충실할 수 있는 시간, 몸짓, 언어 모든 것!! 춤을 출 때면 온갖 잡념들은 사라지고 이 시간과 공간에 나를 둘러싼 바람, 공기, 음악, 숨, 함께하는 사람만이 있다. 순간에 내 에너지가 향하는 일을 하는 것이기에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의 재산이라 생각한다. Seize the monet. Live in the moment ♡
- 흥에 겨워 춤을 출 때 나만의 예술이 되는 것.
- 나의 기쁨, 슬픔, 행복, 좌절, 분노의 모든 감정을 표현해내는 것. 그리고 그 감정들을 공유하고 증폭 혹은 위로하는 것.
- 살아있는 것을 생물적인 의미 이상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 춤추는 동안에는 느낄 수 없지만 열심히 추고 느끼는 심장 소리와 흘리는 땀. 그걸 느껴주게 한다.

댄스 본능 유형

사람은 누구나 댄스 유전자를 타고난다.

- 나이를 먹으며 잊혀져버린 본능. 태어나면서부터 배우지 않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 아무런 도구 없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행위
- 인간에게 꼭 배워야 하는 그리고 배우지 않아도 선천적으로 내재되어진 삶에 꼭 필요한 것.
- 살아가는 동안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몸짓.
- 유일하게 나의 것인 몸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 그리고 태초부터 시작된 인간의 근원적 본능

명상수련 유형

크게 호흡을 들이마시고, 편안한 자세로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 잡념을 내려놓기 좋은 방법.
- 타인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나를 내려놓을 때 나오는 몸짓.
- 내 안의 알지 못했던 나를 만나는 행위.
- 평소에 만날 수 없었던 깊은 곳의 내 자신을 끌어내는 의식. 생각을 몸이라는 수단을 통해 비언어적 소통을 하는 것.
- 내가 가진 몸체(통로)를 통해 하지 못한 말과 상처받은 구석구석을 치유하는 행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과정.
- 생산성, 효율성에서 벗어난 걸음과 걸음 사이의 것. 완전한 낭비가 주는 아름다움. 완전한 낭비로써만 얻을 수 있는 아름다움.

바디랭귀지 유형

난 지금 춤으로 너에게 말하고 있어. 내 마음이 들리니?

- 말의 언어 이상의 몸의 언어. 다른 이들과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방법.
- 가장 솔직한 언어.
- 느낌, 생각, 감정, 영혼이 드러나는 움직임. 말하지 않고 알 수 있는 대화. 그리고 말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멋있는 것.
- 차마 언어로 다하지 못하고. 눈으로 다하지 못한 내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
- 내가 나를, 내 생각,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단 중에서 (글, 말, 그림...) 가장 원초적이고 아름다운 것!
- 말보다 깊은 교류를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도구.

비타민 유형

너는 나의 춤~ 너는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 삶의 활력. 억압되어 있는 나의 내면을 표현하는 수단일까요. 춤을 통해 무언가 다 분출하고 해소할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다시 살아가는 힘을 얻고요.
- 나에게 해우소 같은 것!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 춤추기 전에는 힘들고 지친 몸과 마음을 춤이라는 행우소를 통해 그전의 있던 찌뿌둥함은 사라지고 에너지틱하게 만들어줘요 ^^
- 스트레스 해소 수단. '같이'의 가치가 빛나는 움직임.
- 매일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정말 지겨울 때가 있다. 모든 시간이 멈추고 나만 움직일 수 있다면 좋겠다거나 아니면 일상의 시간에서 나만 빠져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불가능한 그것들을 몇 분의 시간 동안 이루어지게 해주는 것이 춤이라고 생각한다. 경험해

본 결과, 춤을 추는 동안은 속 썩이는 사람이 생각나지 않는 것을 본다면!

- 삶의 활력소. 본능적인 나의 도피처. 죽는 순간까지 춤을 추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벅찬 기쁨을 모두 다 공유하는 그 날이 곧 오기를! ♡

기타

- 술 취하면 나타나는 두 번째 반응.
- 춤이란 화합이다. 사람들은 음악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몸을 움직인다. 이를 이용해 춤을 추며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고, 서로 얼굴을 알지 못해도 화합할 수 있다.







첫 번째 기록

서울댄스프로젝트가
걸어온 길

숫자로 보다

서울댄스프로젝트는 3년 동안
900회가 넘는 워크숍과 춤판 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13만 명이 넘는 시민과 만났습니다.**

춤단, 춤바람 커뮤니티를 통해
1,504명의 시민 춤꾼 을 길러냈고

144명의 자원활동가 가 재능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춤야유회, <서울무도회>, <게릴라춤판>을 통해
관람한 시민은 13만 명 이상입니다.

전담예술가, 보조예술가, 음악과 무대 연출, 전문 공연 등의 역할로
900명의 예술가 가 서울댄스프로젝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언론에 **480회 이상 보도** 되었으며
페이스북 구독자는 누적 11,893명 입니다. (2015/11/19일 기준)
보급형 동영상인 <체어댄스>는 **1,800회 이상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인간적 접촉을 디자인하는 사업

서울댄스프로젝트는 2013년부터 3년간 진행된 종합적인 커뮤니티 댄스 실험의 장으로 ‘누구나 늘 함께 춤추는 서울’을 슬로건으로 삼고 있다.

다른 문화예술 장르도 마찬가지이지만 한국에서 춤의 예술성은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기가 매우 어렵다. 한국인 대부분은 의무교육 기간에 춤을 중요한 표현의 매개체로 접하지 못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특별히 춤을 마주할 일이 없다. 개인적으로 춤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활력을 찾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방송댄스 등 장르화된 춤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지역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역시 비슷한 사정이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춤을 생활체육과 유사한 테크닉의 일종으로 이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달리, 서울댄스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장르화된 춤 보급 사업이 아니다. 한국에서 2010년대 조명받기 시작한 커뮤니티 댄스는 춤을 하나의 예술 언어로 하여 전문 무용수가 아닌 사람들의 일상 속에 녹아들기를 꿈꾼다. 특별한 기술의 습득보다는 자신과 타인의 몸을 이해하고 표현에 집중하며 이를 통해 관계를 맺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커뮤니티 댄스는 문화예술교육 시스템 속에서 하나의 교수법으로만 활용되거나 안은미 컴퍼니의 ‘사심 없는 댄스’처럼 전문 무용 단체의 실험적 창작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서울댄스프로젝트는 예술가의 작은 실험이나 교육의 도구적 범주를 넘어서 커뮤니티 댄스의 일반적 보급이 가능한지를 상당한 규모의 재단 정책 사업을 통해 다년간 실험한 경우이다. 동호회 지원과 유사한 자발적 춤 커뮤니티 지원, 오디션을 통한 시민 춤단의 운영, 서울 시민 축제로서의 무도회, 다양한 형식 실험과 해석을 위한 <커뮤니티 댄스 랩>, 보급형 프로그램인 <체어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연중 내내 이루어진다. 이때, 이 모든 사업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인간적 접촉이다. 춤을 통해 자유로운 표현을 하고, 이 표현들이 서로 맞부딪치고 교환되고 끌어안을 수 있는 상징적 공간 즉, 시민 예술 창작과 향유 플랫폼으로서의 예술 프로젝트를 어떻게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까가 기획단의 큰 고민이다. 이러한 고민은 이 플랫폼의 지지대라 할 수 있는 개별적 사업들이 각자 성과목표를 갖는 것 이상으로 사업과 사업이 상호 간섭하면서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 문화적 에너지의 흐름을 유지 혹은 증폭시키려는 노력과 맞물리게 된다.

서울댄스프로젝트에서 이러한 문화적 에너지의 생성과 전파의 몫은 개별 강의나 작품에 갇히지 않고 여러 사업 사이, 연습실 안팎의 공간을 흘러 다니면서 인간적 접촉을 시도하는 시민에게 있다. 때문에 서울댄스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사업의 엔진이 되어주는 동시에 춤의 일상적 향유를 통해 본인의 삶이 변할 뿐 아니라 다른 시민들에게도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시민축진자의 육성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2015년 사업을 기준으로 도식화해보자면 다음 그림과 같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춤단

2013년 춤단은 일상에서 춤을 사랑하고 즐기는 시민 춤꾼 50명으로 구성되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이들은 8회의 사전워크숍을 통해 춤 매개자의 역할을 부여받아 10월까지 장장 7개월에 걸쳐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춤바람 선포식>을 시작으로 <게릴라춤판> 13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춤 야유회>, <서울무도회> 등에서 활동하였고 그 외에도 시민기획단과 네트워크 파티를 진행했다.

<게릴라춤판>이 진행되면서 참여를 원하는 시민 문의가 늘어남에 따라 <1일 춤단>이 기획되었고 준비워크숍과 현장리허설을 운영하여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다. 총 178명의 시민이 <게릴라춤판>과 <춤야유회>, <서울무도회> 등을 통해 <1일 춤단>이 되었다.

	2013	2014	2015
춤단 (게릴라춤판, 어찌다보니 쇼케이스)			
춤바람 커뮤니티			
춤 다:방			
서울무도회			
춤야유회/1일춤단 /시민기획단			
커뮤니티 댄스랩			
체어댄스			

2014년 춤단은 시민 춤꾼 100명으로 구성되었다. 2013년과 마찬가지로 공개모집과 오디션을 통해 선발되었으며, 2개의 프로그램에 각 6회씩 총 12회의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2014년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있었는데 이의 영향으로 2013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공개모집 기간에 꿈틀거리던 기운이 사고 이후 다소 축소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범국민적 애도 분위기 속에서 사업 초기에 기획되었던 <게릴라춤판>을 소규모 시연회 형식의 <어찌다보니 쇼케이스>로 변경하였고 운영 횟수도 시민청, 용두동 인근 청계천에서 각각 1회씩 총 2회로 축소하게 되었다. 이후, 춤단은 <서울무도회>를 위한 추가 워크숍 6회를 거쳐 오프닝 <춤단 퍼레이드>와 <춤단 100인의 히어로즈> 공연까지 활동을 이어나갔다.

2015년 2014년에 이어 2015년도 전반적인 경기 침체 추세 속에 메르스 등의 영향으로 무거운 봄을 나게 된다. 춤단의 워크숍 효율성 및 집중도를 위해 <게릴라춤판> 개최시기가 9월로 미뤄지면서 춤단 모집 시기도 늦춰졌다. 6월, 오디션을 통해 100명의 춤단이 구성되었고 이들은 7~8월 여름 동안 총 10회의 워크숍과 2회의 현장리허설에 참여한 후 뚝섬한강공원, 반포한강공원에서 <게릴라춤판>을 펼치고 <서울무도회>의 오프닝을 열었다.

특히 2015년엔 <게릴라춤판>의 변화가 많았다. 2013년 <게릴라춤판>은 횡단보도, 육교,

북촌 골목 등에서 잠깐 춤을 펼치고 사라지는 짧은 공연에 가까웠고 그래서 많은 횟수의 공연이 이루어졌다. 2015년 <게릴라춤판>은 2013년에 비해 규모를 키우면서 공연 구성을 풍부히 하고, 시기적으로 <서울무도회>에 가까이 배치함으로써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공연 형식 측면에서도 다른 시민들이 구경하는 위치에서 참여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의도적인 연출을 가미하였다.

춤바람 커뮤니티

춤바람 커뮤니티는 춤을 통해 삶의 활력과 관계성을 북돋우길 원하는 서울 시민 커뮤니티에 전담예술가 및 보조강사를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 39개, 2014년 26개, 2015년 15개의 커뮤니티가 참여하였으며 커뮤니티 참여자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전담예술가들은 사전워크숍, 월례포럼, 평가회 등을 통해 커뮤니티 댄스에 관한 고민을 나누면서 네트워킹을 도모하고 있다.

2013년 일반형 커뮤니티와 기획형 커뮤니티를 함께 운영하였으며 37개의 일반형 커뮤니티는 8회 이상의 워크숍을, 2개의 기획형 커뮤니티 10회의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마을의 일상적 공간에서 진행되는 워크숍과 달리 <춤야유회>, <서울무도회>에서 커뮤니티는 다른 시민들이 오가는 야외 공간에 자신들의 춤을 드러내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17개 일반형 커뮤니티가 <춤야유회>와 <서울무도회>에서 <이웃들의 춤>이란 이름으로 발표 무대를 가졌으며 심화적인 성격이 강한 기획형 커뮤니티는 별도의 오픈스튜디오를 꾸렸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적극적 홍보가 어려웠기에 5월, 7월 두 번에 걸쳐 커뮤니티를 모집 선정하였다. 2014년에는 2013년 운영했던 일반형 커뮤니티 형태만 이어받았다. 각 커뮤니티마다 총 8회의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총 26개의 커뮤니티 중 19개는 <서울무도회>에 서기 위해 추가 워크숍을 1~3회씩 더 진행하였다.

2015년 워크숍 중심 참여와 <서울무도회> 발표 참여로 사업 목적을 구분하자는 전담 예술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입문과정 워크숍 7회-심화과정 워크숍 8회로 단계를 설정하게 된다. 그 결과, 2개의 커뮤니티는 입문과정까지만 진행하였고 13개의 커뮤니티는 참여자들의 출석률과 의지, 전담예술가들의 작업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여 심화 과정을 진행한 후 <서울무도회>에서 <이웃들의 춤>을 선보였다.

2015년에는 기획단은 커뮤니티 간의 네트워킹 사업인 <춤 다:방>을 처음 열었다. 입문 과정과 심화과정 중간 시점에 열린 <춤 다:방>은 4개의 오픈클래스와 모든 커뮤니티가 함께 섞여 춤추는 <어울렁더울렁 파티>로 구성되었다.

서울무도회

해마다 서울댄스프로젝트 참여자와 예술가, 시민들이 함께 서울댄스프로젝트의 과정을

공유하는 축제인 <서울무도회>는 2013년에 태평로, 2014년과 2015년에는 선유도 공원에서 열렸다. 2013년의 <춤야유회@선유도>와 <서울무도회@태평로>의 프로그램들이 합쳐진 것이 2014년 이후 <서울무도회> 형태라 볼 수 있다. 춤단의 <게릴라춤관>, 춤바람 커뮤니티의 <이웃들의 춤>, 시민참여형 워크숍인 <춤 교습소>, 전문무용수들의 공연은 빠지지 않는 프로그램이며 자원활동가들도 매년 활동하고 있다.

커뮤니티 댄스 랩

<커뮤니티 댄스 랩>은 2013년 춤바람 커뮤니티의 기획형 커뮤니티를 운영했던 경험을 토대로 2014년 시작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커뮤니티 댄스가 강의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획일화되는 경향을 우려하여 다양한 예술형식 실험의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제, 사람, 지역 등 춤과 삶이 만나는 영역의 저변을 넓히고 이를 통해 춤의 공공성과 가치를 탐구하는 작업들을 진행한다.

뇌성마비 작가회 ‘날’은 ‘아트 엘’¹⁾의 노경애 전담예술가와 2년간 댄스 랩을 진행하였고 소규모 봉제공장이 밀집된 창신동 지역에서 ‘댄스씨어터 틱’의 작업도 2년간 지속되었으며 작업의 결과물은 매년 오픈스튜디오를 통해 공유하였다.

연구형 사업으로 2014년에는 서로 다른 장르 예술가들의 춤 탐구집인 <정체없는 전체>를, 2015년에는 바로 이 <춤추는 시민을 기록하다> 기록집 작업을 진행하였다.

체어 댄스

2013년 생활 속의 문화예술 캠페인의 일환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체어댄스>의 안무 및 음악을 개발하였고, 일반 직장인과 문화예술교육 행정가 대상으로 시범워크숍을 운영하면서 민간기업 소셜다이닝 ‘집밥’과도 캠페인 연계를 시도하였다.

<체어댄스>의 확산과 배포를 위해 2014년 3월부터 영상 제작을 준비하였는데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하여 5월 제작이 취소되고, 7월에 2차로 재추진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다시 취소되었다. 10월에 3차 영상제작을 추진하여 11월에 제작 업체가 선정되었고 최종적으로 교육형과 활용형 영상이 제작되었다.

2015년에는 서울댄스프로젝트 홈페이지 내에 영상과 음원을 다운받을 수 있는 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그 외에도 워크숍 지원, UCC 제작 공모전 등을 추진하였다. 워크숍은 서울문화재단 내부에서 정기적으로 운영 중이며,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메트로 등 외부 기관 지원도 진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15년 11월 말 외부연계 워크숍 4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수가 1,800회를 넘어섰다.

1) 2014년 작업하였던 ‘ett’이 2015년 단체명을 ‘아트 엘’로 변경하였다.

시민기획단

2013년 첫해에만 운영되었던 시민기획단 15명은 개인 SNS를 통해 서울댄스프로젝트에 대한 온라인 홍보 및 현장기록과 취재를 담당하였다. 그 외에도 <춤바람 선포식>의 붙업 이벤트와 <춤야유회>의 <야매춤선생>을 진행하였으며, 춤단과 함께 2회의 네트워킹 파티도 기획하고 참여하였다.

2013년 사업 연표

	춤단 및 게릴라춤판	춤바람 커뮤니티	<서울무도회>	춤 아우회	기타 일반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오디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설명회 ■ 커뮤니티 모집/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콘셉트 및 운영방안 논의 ■ 1차 프로그램 기획 위한 아티스트 미팅, 섭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와 논의 후 합류 확정 ■ 탱고, 라틴살사, 탭댄스, 스윙댄스 연합회 공연관람 및 1차 미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기획단 모집 ■ 춤추는 공무원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춤단 오리엔테이션 ■ 워크숍 진행 (매주 토/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 커뮤니티-전담예술가 매칭미팅 (4/17) ■ 전담예술가 미팅 (4/17, 4/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논의, 아웃라인 설계, 공간답사 ■ 운영대행사 사업설명회 (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셜댄스 단위별 연계할 수 있는 지점 1차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기획단 15인 선정 ■ 시민기획단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워크숍 ■ 홍보대사 8명 위촉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릴라춤판 (동호대교, 청계천, 5678서울도시철도, 신촌&홍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 진행 ■ 기획형 커뮤니티 Pre-event 움직임 워크숍 (5/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셜댄스 단위별로 연계할 수 있는 지점 2차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댄스프로젝트 공식홈페이지 오픈 ■ 춤바람 선포식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릴라춤판 (건널목, 북촌, 5678서울도시철도, 광화문, 마포대교 생명의 다리, 남산 팔각정) ■ 1일 춤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서울페스티벌 프로그램 연계 위한 1차, 2차 미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유도 공간답사, 세부 프로그램 논의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춤단&시민기획단 네트워킹 파티 (7/12, 9/16) ■ 게릴라춤판 with 조던 매터 (7/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 진행 ■ 전담예술가 월레포럼 (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서울 3차 미팅, 답사, 세부프로그램 아티스트 미팅 ■ 운영대행사 과업 협상 (총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셜댄스 세부 프로그램 3차 논의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교예술실험센터 기획행사 '불금댄스' (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 진행 ■ 전담예술가 월레포럼 (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대행사 계약 (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활동가 모집/오리엔테이션/교육 (8/2~8/17) ■ 1일 춤단 사전워크숍 (8/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춤아우회@선유도 (8/17) <p>춤단과 1일 춤단의 에코댄스와 댄스퍼레이드, 춤바람 커뮤니티의 이웃들의 춤, 아티스트 게릴라 공연, 춤 교습소 워터스테이지, 소셜댄스파티, 서울그루브나이트&볼꽃놀이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p>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춤단&시민기획단 네트워킹 파티 ■ 소셜다이닝 집밥 '소화가 잘 되는 점심시간' (9/25, 9/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 진행 ■ 전담예술가 월레포럼 (9/10) ■ 기획형 커뮤니티 오픈스튜디오 (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세부 논의, 시뮬레이션, 하이서울 연계 시뮬레이션 회의 진행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셜다이닝 집밥 '소화가 잘 되는 점심시간' (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춤단 사전워크숍 (10/3) ■ 자원활동가 모집 ■ 자원활동가 교육 (10/3, 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기획단 해단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무도회>@태평로 (10/6) <p>500개의 버블매트와 함께 한 버블댄스, 컬러댄스카니발, 즉흥공연인 태평댄스, 이웃들의 춤, 댄스 퍼레이드, 서울 그루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p> <p><서울무도회> 1일 춤단 공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간담회/해단식 (1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회의 (10/15, 1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대행사 전체평가회의 (10/16) ■ 세부 프로그램별 평가회의 (<서울무도회> 총4회, 춤아우회 총11회) 		

2014년 사업 연표

	춤단 및 어쩌다보니 쇼케이스	춤바람 커뮤니티	<서울무도회>	<커뮤니티 댄스 랩>	<체어댄스>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예술가 사전미팅 (4/15) 커뮤니티 모집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접/오디션 춤단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뮤니티 모집/선정 전담예술가 워크숍 (5/20) 커뮤니티-전담예술가 매칭미팅 (5/26, 5/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아웃라인 설계 & 선유도 공원 답사 및 1차 미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ett + 뇌성마비 작가회 날 워크숍 진행 (5월 시작) 워킹프로세스 포럼 (8/21)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워크숍 (매주 토/일) 어쩌다보니 쇼케이스 (시민청, 6/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뮤니티 리서치/워크숍 프로그램 개발 (6/1~6/15) 커뮤니티 추가모집 워크숍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대행사 사업설명회 (6/12)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쩌다보니 쇼케이스 (용두동, 7/26) 워크숍 수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워크숍 진행 커뮤니티 추가선정 추가 매칭미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 프로그램 구성 회의 (1~4차), 선유도공간 답사, 시민참여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 아티스트, 음악감독 등 섭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댄스씨어터 틱 + 창신동 000간 워크숍 진행 (6월 시작) 정체없는 전체 연구 진행 (8월 시작)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워크숍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세부 시뮬레이션 회의, 선유도 공간 세부 사용 내용 최종협의 운영대행사 과업 협상 (총5회) 계약 (8/21)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무도회> 준비워크숍 (8/30~9/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무도회> 참여팀 추가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활동가 1차, 2차 모집 자원활동가 오리엔테이션 (9/13) 플래시몹 교육 및 홍보 (9/20~9/27) 프로그램 운영 세부 시뮬레이션 회의 및 정기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ett + 뇌성마비 작가회 '날' 오픈스튜디오 (9/4) 댄스씨어터 틱, 정체없는 전체 워크숍, 연구 진행 간담회 (9/11) 	
	<서울무도회>@선유도 (9/28) 춤단의 춤단 퍼레이드와 춤단 히어로즈, 춤바람 커뮤니티의 이웃들의 춤, 전문 초청공연, 시민참여형 춤 워크숍 4개 프로그램과 댄스골든벨, 서울그루브나이트&불꽃놀이 등으로 구성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간담회/해단식 (1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회의 (1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대행사 평가회의 (10/7) 세부 프로그램별 평가회의 (총 13회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댄스씨어터 틱, 정체없는 전체 워크숍 진행 댄스씨어터 틱 + 창신동 000간 워킹프로세스 포럼 (10/10) 오픈스튜디오 (1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상제작 추진 시작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체없는 전체 워크숍 진행 워킹프로세스 포럼 (1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상 기획제작업체 선정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체없는 전체 오픈스튜디오 (12/2) 	

2015년 사업 연표

	출단 및 게릴라출판	춤바람 커뮤니티	<서울무도회>	<커뮤니티 댄스 랩>	<체어댄스>
2월	■ 전담예술가 1차 기획회의	■ 전담예술가 섭외 및 확정		■ 전담예술가 공동기획회의	■ <체어댄스> 교육편/활용편 영상 촬영 및 제작
3월	■ 전담예술가 2차 기획회의 ■ 게릴라출판 1차 공간 리서치/답사	■ 모집공고 ■ 전담예술가 사전워크숍 (3/20, 3/21)			■ 영상 1차 편집회의
4월	■ 게릴라출판 2차 공간 리서치/답사	■ 전담예술가 사전워크숍 (4/23) ■ 서류&면접심사 ■ OT/ 커뮤니티-전담예술가 매칭미팅 (4/30)	■ 프로그램 단위별 협의 미팅 ■ 운영대행사 사업설명회 (5/28)	■ 기록집 관련 사업 자료 검토	■ 영상 2차/3차 편집회의 ■ 교육편/활용편 영상 제작 완료
5월	■ 모집공고 ■ 게릴라출판 3차 공간 리서치/답사	■ 입문과정 워크숍 진행		■ 아트 오프 + 뇌성마비 작가회 날 리서치, 워크숍 진행 ■ 기록집 취재 진행	■ 외부연계 워크숍 서울시 교육청 (5/27) ■ 홈페이지 동영상 다운로드 페이지 구축
6월	■ 면접/오디션	■ 입문과정 워크숍 진행 ■ 전담예술가 월례포럼 (6/18)	■ 프로그램 단위별 협의 미팅, 선유도 답사 ■ 운영대행사 심사, 선정	■ 아트 오프 + 뇌성마비 작가회 날 워킹 프로세스 포럼 ■ 기록집 취재 진행	
7월	■ 오리엔테이션 워크숍 (2주간 토/일)	■ 입문과정 워크숍 진행 ■ 춤 다:방 (7/4)	■ 프로그램 세부 시뮬레이션 미팅 ■ 운영대행사 과업협상(총6회) 및 계약 (7/29)	■ 기록집 취재 진행 ■ 댄스씨어터 팀 리서치 진행	■ <체어댄스> 앱 개발 착수
8월	■ 워크숍 (3주간 토/일) ■ 현장리허설 (8/30, 8/31)	■ 심화과정 워크숍 진행 ■ 전담예술가 월례포럼 (8/27)	■ 공간 답사, 현장 조율	■ 댄스씨어터 팀 리서치, 워크숍 진행 ■ 기록집 취재 진행	■ 재단내부 시범운영 및 설문조사 실시
9월	■ 게릴라출판 (9/5 독서한강공원 9/12 반포한강공원)	■ 심화과정 워크숍 진행	■ 자원활동가 1차, 2차 모집 ■ 자원활동가 O/T (9/5) 교육 (9/13, 9/16)	■ 아트 오프 + 뇌성마비 작가회 날 워크숍 진행 ■ 댄스씨어터 팀 워크숍 진행 ■ 기록집 취재 진행	■ 재단직원 대상 의견취합 ■ 재단내부 정기시행 (수/금 16시)
10월	■ 전담예술가 평가회의 (10/12) ■ 평가간담회/해단식 (10/16)	■ 전담예술가 평가회의 (10/19) ■ 커뮤니티 단체대표 평가회의 (10/20)	■ 운영대행사 평가회의 (11/9) ■ 세부 프로그램별 평가회의 (총 12회 진행)	■ 아트 오프 + 뇌성마비 작가회 날 워크숍 진행, 오픈 스튜디오 (10/21) ■ 댄스씨어터 팀 워크숍 진행 ■ 기록집 취재 진행	■ 외부연계 워크숍 서울메트로 (10/23) ■ <체어댄스> UCC 제작공모전 (10~11월)
11월				■ 댄스씨어터 팀 오픈 스튜디오 (11/5) ■ 기록집 취재 진행	■ 외부연계 워크숍 세종학당재단 (11/22) 삼성생명 (11/30)
12월				■ 기록집 '춤추는 시민을 기록하다' 발간	

두 번째 기록

2015년 사업 현장에서

춤바람 커뮤니티 몸을 살리는 움직임

취재 및 작성 : 김유진

자칫하면 고립되기 쉬운 복잡하고 경쟁적인 대도시 서울에서 춤을 통해 시민 스스로 자신의 이웃을 발견하고 관계 맺으려 노력하면서 삶의 활력을 찾는 과정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서울 시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커뮤니티를 선정 후 전담예술가를 매칭하여 생활공간 주변에서 춤 워크숍을 장기간에 걸쳐 진행하는 것이 주요한 프로그램 골자이다. 2015년에는 15개 커뮤니티가 선정되어 입문과정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12개 커뮤니티가 심화과정을 거쳐 <서울무도회> <이웃들의 춤> 섹션에서 그 간의 과정을 발표회 형태로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2015년에는 <춤 다:방>을 기획해 커뮤니티별로 각기 진행되는 워크숍의 한계를 넘어 다른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촉진하려는 시도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

커뮤니티 참관기

- 다양한 성격의 커뮤니티와의 첫 대면

4월 18일, 시민청 지하 2층의 동그라미방은 어수선했다. 곧 면접심사가 있을 예정이었고 심사위원들이 춤바람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었다. 면접은 한 번에 한두 개의 커뮤니티가 들어와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 커뮤니티가 들어오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한 커뮤니티 당 15분에서 30분가량으로 충분히 길게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다. 커뮤니티는 본인들의 모임을 소개한 후 사람들과 함께 춤추고 싶은 이유를 말했고 심사위원들은 비판적 관점을 취하기보다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난 후 궁금한 점에 대한 대화를 시도하였다. 주로 춤 자체보다는 커뮤니티에서 기대하는 춤의 효과, 커뮤니티 내의 관계 등에 관한 질답이 오고 갔다.

열다섯 커뮤니티의 다양한 사정을 마주하다 보니 몇 시간이 쏠살같이 흘렀다. 커뮤니티 사업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주부, 노인 모임뿐 아니라 청년 모임, 공동육아 공동체와 같은 대안적 공동체, 미술작가 등 문화예술 활동가 모임, 풍물 동호회, 사회적 소수자인 결혼이민여성과 장애인 모임 등 춤이 좋다고, 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커뮤니티의 성격은 정말 제각각이었다.

- 좋은 삶을 꿈꾸는 커뮤니티의 노력을 돕다

참여 신청 모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3년째인 춤바람 커뮤니티의 성과와 함께 그 한계도 명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사업 관계자들은 초기에 비해 서울댄스프로젝트에서 다루는 춤의 특징을 사람들이 정형화하여 받아들이고 이 때문에 대중적인 접근이 어려워

진다고 이야기하기였다. 현재 한국적 지평에서 춤이라고 하면 보통 장르화된 형태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춤을 계속 추고 싶은 의지가 있고 춤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더구나 특정장르의 춤이 아닌 몸의 표현에 중점을 둔 난해한 움직임이 춤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춤추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나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 자아 발견이라는 자신감의 획득, 개인의 상처를 위로받은 치유의 경험’을 포함한 강렬한 삶의 의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문 무용가들의 춤추는 이유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인식으로 생각됩니다.”

- 0423 전담예술가 워크숍 김민정 발제 중

반면, 그렇기 때문에 참여 신청이 줄었음에도 각 모임들은 커뮤니티 댄스를 하려는 목표 의식이 분명한 편이었고 커뮤니티 사업의 필요성 측면에서 명징한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었다. 공통적으로 커뮤니티들은 춤을 통해 삶의 에너지를 복돋고 사회적 관계를 맺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실제 어떤 커뮤니티들이 참여했는지는 아래에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참여 신청 커뮤니티 소개, 지원 동기 (*가나다순)

■ 도시 속 장한공동육아 (총 10인)

#마을, #맞벌이, #육아, #방과 후

장안동에서 마을살이 하는 서울안평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족들 모임이다. 수요일이더 마실가기, 부모인문학, 마을축제, 마을잡지,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 등 도심 속 마을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맞벌이 부모들의 방과 후 아이들의 돌봄 문제를 고민하다 참여 신청하게 되었고 서울댄스프로젝트에 참여 신청한 모임은 8~9세 어린이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심사위원들은 면접 시 어렵지만 초반이라도 부모님이 결합하는 세대 간 활동을 추천하였다.

■ 도시의 노마드 (총 20인)

#시민공연, #축제, #신명

‘참여연대’가 주축이 되어 몸과 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춤서클’을 조직하였다. 2014년 참여 커뮤니티로 <서울무도회> 공연 경험과 시민과 함께하는 신명난 춤판을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며, 모임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서울무도회>라는 큰 공연 무대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동대문옥상낙원DRP (총 30인)

#청년, #지역재생, #감각 열기와 몸 표현

동대문 신발도매상가B동에 위치한 문화예술모임으로 낙후 도심지의 옥상을 거점 공간으로 하여 일종의 청년학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거리예술, 지역재생, 커뮤니티아트 등에 관심이 많은 예술가 및 문화예술 활동가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끌면서 청년들

과 만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커뮤니티 댄스를 다른 옥상 활동들과 어우러지게 접목하고자 한다. 2014년 참여 모임이다.

■ 레드안테나 (총 15인)

#공공미술, #감각 열기와 몸 표현

30세에서 50세에 이르는 미술인들의 커뮤니티로 공공미술프로젝트 진행, 국제교류전과 기획전을 개최하는 등 전문적인 미술인 공동체로서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춤을 통해 감각을 확장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참여 신청하게 되었다고 한다.

■ 문화로놀이짱_리듬제작소 (총 20인)

#사회적기업, #청년, #환경, #노동의 리듬, #감각 열기와 몸 표현

폐목재를 활용해 목공 수작업을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다. 몸 노동을 기본으로 하는 제작자들이 석유비축기지를 거점으로 하여 청년들과 협업하면서 창의적인 몸 활동, 몸의 리듬에 관심을 갖고 춤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계획에 전담예술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 문.행.주 (문래에서 행복을 찾는 주부들의 모임, 총 22인)

#마을, #주부, #육아

젊은 주부와 아이들이 많은 문래동에서 2012년 주부연극교실에 모인 주부들이 작품 공연을 하며 관계를 맺고 2013년 주부 모임을 구성한 경우다. 지역에서의 생활과 주민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서울댄스프로젝트에는 2013년부터 참여했는데 주부들에게 일상을 벗어나는 경험인 동시에 자녀와의 관계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고 하며 2015년에도 엄마와 자녀들로 모임을 구성해 참여 신청하였다. 커뮤니티 댄스 외 마을축제 합창단, 주부연극교실 등 문화예술 활동 경험이 많다.

■ 미처 우리가 (총 13인)

#시민공연, #축제, #신명

2014년 '스몰 댄스 유니온'으로 참여했던 8인과 신규 영입한 5인이 새롭게 모임을 구성해 2015년에도 참여 신청하였다. 춤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높고 공연 활동을 중시하여 성균관 소극장, 당진 노인대학, 수원 인문학축제 등의 무대에 섰으며 무용경연대회에도 참여하였다.

■ 봉천놀이나당 우리사위 (총 13인)

#전통무용, #춤 연구와 발전

우리사위는 1987년 설립된 서울관악지역 전통문화단체 봉천놀이나당의 일반인 춤패다. 봉천놀이나당은 전통 풍물과 탈춤, 전통 음악과 공연 등을 일반인에게 보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울댄스프로젝트에 2013년부터 참여하여 전통춤에 현대적인 몸짓을 결합하려 시도 중이다.

■ 3355 (총 13인)

#청년, #춤 연구와 발전

‘안은미 컴퍼니’에서 진행한 어른들의 <몸놀이공장 3355> 프로그램 참여자들 중 일부가 인연이 계속되고 춤을 추고 싶다는 생각에 새로운 얼굴들과 함께 참여 신청한 경우로 20대가 대다수인 비교적 젊은 그룹이다. 면접 심사에 왔던 리더는 재즈댄스, 현대무용, 팝핑, 한국무용 등 장르 무용에 대한 경험이 있었고 주도적으로 사람들을 모았다고 한다. 참여자들 중에는 연극배우 지망생, 현역 배우가 4인이나 포함되어 있어 문화예술 공연에 관한 전문성이 비교적 높고 관계의 연속성을 추구하는 리더의 역할이 큰 모임이다.

■ **아사책 (아이를 사랑하는 책 읽어주는 모임, 총 10인)**

#퇴직자, #노인 활력

60대 이상 교직생활 퇴임자들로 구성된 커뮤니티로 노인 세대의 활력을 고민하면서 즐겁게 살기 위해 춤을 추고 싶다고 하였다. 합창을 함께한 경험이 있으며 대방동에 위치한 서울여성프라자를 활용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

■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총 12인)**

#청소년, #여성문제, #감각 열기와 몸 표현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기관으로 2001년부터 YMCA가 서울시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성폭력 등의 문제에 노출되었던 청소년의 특징상, 방송댄스 등 일반적인 장르형 춤 교습 프로그램이 아닌 몸에 대한 가치관과 자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몸 프로그램을 원했다. 2013~2014 참여 기관으로 공동체 지향성을 지닌 커뮤니티 댄스의 효과를 경험하였으며 2015년도 동일한 목적의식으로 참여 신청하였다.

■ **언니네 무용단 - 춤스 (총 10인)**

#여성문제, #감각 열기와 몸 표현

비영리무용단체 ‘몸짓너루’에서 진행했던 <언니네 무용단> 1~4기 워크숍을 통해 만난 여성들이 만든 동아리 모임으로 30~50대까지 다양한 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여성의 주체적인 몸 표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만난 만큼 춤바람 커뮤니티를 통해 여성의 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며 연속성 있는 활동을 이어가고자 했다.

■ **은평재활원 (총 10인)**

#장애인, #재활

지적 장애를 가진 성인, 청소년, 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남자장애인 거주시설. 3년 연속 참여 단체로 장애 재활에 춤이 도움이 되었던 경험으로 재신청한 경우다. 참여자의 자존감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과 즐거움을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2012년 무용 교육 프로그램 에코댄스, 그린퍼포먼스캠프 등 다른 프로그램 경험이 있다.

■ **춤꽃마실 (총 12인)**

#주부모임, #여성문제

중년 여성의 자아정체감, 일상의 활력, 지역사회 인식 등을 위한 춤무아트홀 커뮤니티 댄스 프로그램 <춤추는 꽃중년 프로젝트> 참여했던 사람들이 창단한 모임으로 4년째 지속되고 있다. 중구의 공동체 공모사업에 <춤배달 밥배달> 프로젝트로 선정된 경험이

있으며 이 때 신당동 마을 골목길 제품공장을 방문해 춤과 밥을 나누며 춤판을 벌이는 등 지역사회 접촉이 있었다. 커뮤니티 댄스를 계속할 기회를 찾아 참여 신청한 경우이며 2014년부터 참여했다.

■ Cafe Phillipino 댄싱워드 필리피노 (총 10인)

#다문화, #여성문제

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010년부터 운영한 모임으로 필리핀 국적의 결혼이민여성들로 이루어져 있다. 커뮤니티 구성원의 한국 정착 기간은 주로 3~5년이다. 센터에서는 한국 사회의 적응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댄스 배우기 교실에 대한 지속적 요구가 있었으나 전문 강사 초청 및 사업비 문제로 아 이템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어 참여 신청했다고 한다. 면접 심사에는 필리핀에서 댄스 강사 경험이 있고 댄스 경연대회에서도 수상했던 이민자 대표도 참석하였다.

면접 과정에 들어왔던 15개 커뮤니티는 모두 춤바람 커뮤니티 활동에 적합하였기에 심사 탈락 없이 모두 서울댄스프로젝트의 식구가 되었다. 서울댄스프로젝트는 이들 커뮤니티의 성격에 따라 알맞은 전담예술가를 매칭하여 7회의 입문 과정을 진행하였다. 김윤진 기획감독은 사실상 춤바람 커뮤니티의 성공 여부는 전담예술가와 커뮤니티 사이의 궁합에 있다고 하였다. 주부들에게 섞여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노인들과 원활히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람, 청년의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등이 다르다는 것이다.

입문 과정에서 무탈하게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커뮤니티의 지속성을 보여주며 <서울무도회> 참석을 원했던 13개 모임은 작품 발표를 위한 창작과 연습을 위해 8회의 심화 과정을 추가적으로 거쳤다. 입문과 심화 과정을 나눈 것은 올해 처음인데 춤바람 커뮤니티가 <서울무도회> 발표 준비 과정으로 인식되어 모임의 순수한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전담예술가들의 의견과 어떤 모임은 무도회 참석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된 사항이라 한다.

- 표현하는 움직임, 일상을 던지고 일어설 힘을 주다

6월 11일, 기록팀은 춤바람 커뮤니티 현장으로 첫 취재를 나갔다. 저녁 7시, 그 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려서 더 빨리 어스름이 내려앉은 날이었다. 동국대역 근처 족발골목을 지나 골목 깊숙이 들어가자 장충동 스튜디오가 위치한 빌라 건물이 나타났다. 3층으로 올라가니 아담한 무용실이 있었다. 녹녹한 날씨에도 실내는 쾌적했고 아로마 향을 피워서 좋은 향기가 났다. 워크숍을 아직 시작하지 않아서 사람들은 몸을 풀고 있었다. 마룻바닥에 등이나 머리, 팔, 발바닥 등 몸의 다양한 부위를 붙이고 있었는데 중력에 당겨지는 것처럼 축 늘어지는 동작들이어서 나른하고 몽롱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 커뮤니티의 이름은 '미쳐 우리가'로 최경실 전담예술가와 커뮤니티 탄생부터 함께하여 돈독한 궁합을 보였다. 이들은 춤을 통해 감정 표현을 하는데 상당히 훈련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 춤에 대한 기초 학습이나 기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감정 표현은 최경실 전

담예술가가 커뮤니티 댄스를 하며 추구하는 지점으로 보였다. 그녀가 담당하고 있는 또 다른 커뮤니티인 '도시의 노마드'에서도 비슷한 광경을 보았다. 몸으로 욕을 주고받는 동작을 한다든지, 자신의 감정에 몰입해 천진난만하고 편안한 뽀박질을 한다든지. 쓸데없음이 허용된 일종의 '짓거리', 몸 가는 대로 추는 춤을 통해 스스로 존재감을 느끼고 감정을 치유하는데 초점이 있었다. 뉴웨이브 음악, 아로마 향 등의 소품 역시 이러한 춤 과정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보통 치유 혹은 힐링이라고 하면 현실감과 단절된 고립을 부추긴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커뮤니티의 감정 해소 과정이 일상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마음 수련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미쳐 우리가'의 한 참여자는 커뮤니티 댄스를 통해 주변인의 죽음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며 매주 춤을 추기 때문에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했다. 이렇듯 현실을 딛고 일어설 힘을 기르는 데는 공동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개개인이 혼자서 내면으로 한없이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춤을 추는 사람들과 속 이야기도 주고받고 모여 술도 마신다고 한다. '도시의 노마드'를 취재 갔던 날은 한 구성원이 생일을 맞았는데 다른 구성원들이 한 분 한 분 생일축하 춤을 취주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두 커뮤니티의 공통점이라면 중장년이 주축이 된 모임이라는 것이다. '도시의 노마드'는 참여연대에서 구성된 커뮤니티로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중장년의 모임이다. '미쳐 우리가' 역시 춤을 매개로 이어진 중장년들의 모임이다. 중장년들은 인생의 굴곡을 겪으며 켜켜이 쌓아왔던 복잡한 감정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볼 힘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아마도 이러한 커뮤니티의 특징이 전담예술가의 지도 방법을 신뢰하는 데 중요한 근간이 되어준 듯했다.

최경실 전담예술가의 지도 방법은 안나 할프린의 치유로서의 춤과 흡사한 면이 있다. 안나 할프린은 자기 자신의 암을 치유하기 위해 '형태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춤을 추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집단 치유의식을 개발하였다. 이후, 자신의 댄스 스튜디오가 위치한 타말파에서 피살된 7명의 여성을 위해 <땅을 둘러싸기(Circle the Earth)>라는 공동체 치유의식을 치렀다고 한다.²⁾

이러한 교수 모델은 놀이와 융합된 공동체 제의와 닮은 점이 있다. 가족, 마을, 크게는 국가 구성원이 공통으로 겪는 삶의 고통을 함께하는 놀이를 통해 사회적 소통으로 승화하는 제의는 그 필요성에 비해 현대 사회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 안나 할프린이나 최경실 전담예술가는 모두 몸짓을 통한 개인의 치유에서 작업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서울과 같은 글로벌메가시티에서 커뮤니티를 위한 현대적 제의를 작동시키려는 것처럼 보인다.

2) SBS스페셜 “치유의 춤” 개척자 안나 할프린” 참고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774744



미처 우리가



도시의 노마드



- 내 몸으로부터 타인의 몸을 향해 시선이 열린다

6월에 방문했던 또 다른 커뮤니티인 ‘레드 안테나’의 분위기는 ‘미쳐 우리가’나 ‘도시의 노마드’와는 사뭇 달랐다. 경쾌하게 작업과 놀이를 넘나드는 동호회 분위기가 났다.

커뮤니티가 십시일반 비용을 부담해 대여했다는 홍대 인근 연습실은 붉은색과 나무색의 싱크대가 설치된 바와 전면 거울 등 무기물 질감과 조화롭게 어울렸고 지하임에도 햇빛이 실내 깊숙이 들어쳐 상당히 밝았다.

기록팀은 ‘레드 안테나’가 미술 작가들로 이루어져 있어 신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싶어 하고 몸이나 춤이 보이는 형태 즉, 이미지에 대한 이해력이 높다는 사전 정보를 들었다. 방문했을 때 마침 모임 구성원들은 학구적인 열기로 춤에 몰입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전담예술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똑같은 동작을 취함에도 각이 다른 것을 느끼고 “선생님 동작은 멋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멋이 없네요.”라면서 웃기도 하고 제대로 동작을 취하려 노력하기도 했다.

보이는 만큼 자신의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을 몸에 대한 인지적 접근으로 풀어내는 것이 박소정 전담예술가의 지도 방식이었다. 수업 중간에 해부학 서적을 함께 보며 내 몸의 뼈와 근육이 어디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화를 나누었고 워크숍이 끝나고 나서도 신체의 기능이나 움직임에 관한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무엇보다 시선을 워크숍 진행하는 내내 강조하였다. 시선을 따라가며 나의 신체적 움직임을 연결해 나갈 뿐 아니라, 타인의 움직임과 연결해 확장하고, 움직임과 공간과의 관계를 이해하라는 조언이 계속 이어졌다. 시야의 확장을 통해 움직임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이루려는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시각적인 요소가 강조되면서 개념을 이해하도록 돕는 워크숍 방식이 미술작가들에게는 친근하여 공감하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소정 전담예술가가 ‘레드 안테나’와 했던 작업은 신경생리학, 뇌과학 등과 연결된 ‘몸학(Somatics)’을 닦았다. 몸학은 살아있는 몸이 움직임의 연속으로 이루어졌음을 ‘알아차리고’ 내 몸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개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만성통증을 다스리거나 중독 문제를 치유하기도 한다.³⁾ 커뮤니티 댄스에서 이런 교수 모델은 실질적인 병의 치료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나의 몸을 이해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자연스럽게 하고, 주위환경을 인지하는 등 나와 나 바깥과의 실질적인 관계를 되돌아보는 데 목표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3) 토마스 하나, “부드러운 움직임의 길을 찾아”, 소피아, 2013. 참조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을 모색하다

뜨거운 여름의 끝자락이었다. 커뮤니티들은 입문 과정을 마치고 심화 과정으로 들어선 상태였다. 8월 20일, 기록팀은 은평재활원의 워크숍 과정을 참관하기 위해 갈현동의 은평마을예술창작소를 찾았다. 버스정류장 종점이 위치한 갈현동은 건물들이 오밀조밀하였고 생활의 숨결이 물씬 풍기는 동네였다. 은평마을예술창작소는 지역의 흥물이던 구산가압장을 개조하여 만들었는데 1층짜리 단독주택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작은 규모였지만 공연장, 사랑방, 카페 등 마을 사람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짜임새 있게 디자인되어 있었다.

창작소 지하에 작은 공연장 겸 연습실이 있었고 지적장애 성인 남성들이 반바지를 입고 공을 사용해 발가락을 움직이는 연습 중이었다. 쉬는 시간이 자주 있었는데 다들 물러가 아이들처럼 물을 마시거나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 안무를 여기저기서 흥내 내었다. 아주 흥이 많은 분들이었다. 수십 여분 몸을 풀어주고 나서 본격적으로 리듬에 맞춰 표현 동작을 연습했는데 이 때 타악 연주자가 실제 연주를 통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갔다. 모임 구성원 중에는 특별나게 춤을 더 잘 추는 분도 계셨고 춤추는 방식을 통해 각자의 성격과 개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서 매우 흥미로운 자리였다.

홍혜전 전담예술가는 이분들이 아주 흥이 많고 춤을 좋아하지만 기존에 익힌 습관대로만 반응하려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방송댄스, 힙합 등을 오랜 기간 학습해 와서 K-POP이 흘러나오면 자동적으로 몸을 들썩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실제 타악 연주를 곁들여 다양한 악기와 리듬에 따라 표현 연습을 진행했다고 한다.

은평재활원의 커뮤니티 댄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연스러운 어울림에 초점을 두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서울댄스프로젝트의 시민 네트워크 축제의 장(場)인 <춤 다:방>과 <서울무도회>에는 무조건 참여한다고 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감정으로 춤추면서 이 사회에 섞여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워크숍 과정도 정형화된 동작 외 새로운 움직임, 음악을 듣고 느끼는 자기표현 등에 목표가 있다 하였다. 이러한 목표들은 장애인 대상의 일반적인 춤 커리큘럼이 개개인의 신체 재활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에 비해 상당히 공동체 지향적이다.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 남성뿐 아니라 전담예술가, 보조예술가, 타악 연주자를 바라보자니 저절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다른 것을 고쳐서 평균에 맞추는 작업이 아니라 다른 것들 사이의 관계 맺기가 비록 서툴더라도 지속되었으면 좋겠다고.



- 어른들은 모르는 아이들의 움직임

8월 22일, 기록팀은 '도시 속 장한공동육아' 모임을 찾아 장안 1동 문화센터를 찾아갔다. 토요일 주택가 골목은 매우 한산했고 문화센터도 몇몇의 아이들만 문화센터 1층과 2층을 뛰어 오르내리고 있었다. 바깥의 고요함과는 달리 2층 연습실로 들어가니 예닐곱의 아이들과 워크숍 준비에 바쁜 예술가들로 공간이 활기찼다.

곧 아이들과 예술가가 다 같이 공중으로 뛰어오르고 몸과 몸을 연결한 상태에서 갖가지 방법으로 서로의 몸을 통과하는 등 흥겨운 놀이가 시작되었고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아이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몰입할 수 있게 고안된 몸풀기였다. 적당히 분위기가 무르익자 쉽게 접할 수 있는 주변 사물과 사람 몸의 길이를 상상해보는 수업이 진행되었다. 이를테면 부풀어 오른 풍선을 바닥에 놓고 풍선 속의 길이를 찾아보는 것이다. 한 아이는 풍선 꼭지 길이만큼 짧게 종이테이프를 바닥에 붙였다. 다른 아이는 풍선의 가로 길이만큼 종이테이프를 붙였다. 동일한 작업을 친구들의 몸을 통해서도 하였다. 아이들은 팔꿈치부터 손가락까지의 길이, 왼발과 오른발 사이의 간격 등을 찾아냈다. 이 때 모델은 다양한 길이를 찾아낼 수 있도록 창의적인 포즈를 취해야 한다. 상상력이 가미된 몸 놀이를 하다 보니 연습실은 온통 조각난 종이테이프로 어지러워졌고 테이프가 지나는 길 위에 듬성듬성 사진까지 세워져 공간 전체가 행위예술 작품처럼 변했다.

처음엔 공동육아 모임이라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하는 워크숍이지 않을까 기대하였는데 아이들만 있다는 점에 의아했다. 노경애 전담예술가는 1차 워크숍에는 부모들도 참관했었는데 아이들이 부모의 판단에 의지해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듯하여 2차 워크숍부터는 아이들로만 진행하였다고 한다. 워크숍을 참관하고 나니 왜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인지 이해가 갔다. 몸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워크숍이기에 아이들의 대답이 쉽든 어렵든, 창의적이든 평범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오로지 혼자 힘으로 찾아내고 이리저리 궁리해보고 두려움 없이 시도해보는 과정이 중요했던 것이다. 커뮤니티 댄스에서 세대 간 만남이라는 명분 좋은 목표를 향할 수 있었음에도 거꾸로 아이들만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현장의 힘을 엿보게 된다. 커뮤니티 댄스에서 댄스는 커뮤니티를 위한 단순한 도구가 아닌 것이다. 댄스가 존재해서 몸이 살아나는 과정을 겪어야 커뮤니티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만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자면, <춤 다:방>이 개별 커뮤니티의 경계를 과연 넘나들어 새로운 이웃을 만들 계기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남았다. 커뮤니티를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알아가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는 점이 다소 마음에 걸렸다. 고양된 분위기에서 마주보고, 손을 잡고, 서로의 동작을 따라하면서 느끼는 순간적인 일체감은 음악과 조명으로 연출된 공간을 벗어나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 커뮤니티는 춤 전문가가 되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목표 자체가 일상 속의 관계와 삶의 질에 초점이 있으므로 관계 맺기의 여러 층위를 고려하면서 사업 기획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엔 워크숍에서 다양한 아이스 브레이킹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고 다양한 시민 대화 모임의 노하우를 소개하고 전파하려는 움직임도 존재한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벌이는 이들과 판을 짜고 놀아보는 것은 어떠할까 궁금하다.



- 예술가들, 커뮤니티 구성원과의 소통을 고민하다

커뮤니티가 <춤 다:방>을 통해 경계를 넘어 만난다면, 전담예술가들은 월례포럼과 워크숍을 통해 자기가 담당할 커뮤니티를 벗어나 네트워킹한다. 전담예술가들끼리 만나는 자리는 사업의 규모 측면에서 보면 비중이 작지만 의미 측면에서는 중요하다. 시민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관찰하거나 받아들여 실질적인 워크숍 철학으로 세워나가는 주체가 전담 예술가이기 때문에 함께 사업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커뮤니티 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곧 춤바람 커뮤니티 사업의 정체성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전담예술가 사전워크숍은 커뮤니티와의 매칭이 이루어지기 전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중에서도 4월 23일에 열린 2차 워크숍은 공동체에 춤이 필요한 이유를 토의하는 꽤 무거

운 자리였다. 이미 춤바람 커뮤니티를 겪어본 전담예술가들은 참여 시민들의 춤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놀라워하는 동시에 대중적인 무용 장르로 단순화하여 설명할 수 없는 춤바람 커뮤니티의 성격이 참여 모집 등의 홍보와 프로그램 확산에 한계를 짓고 있다는 고민을 나누었다. 그 외 예술과 사회의 관계, 예술강사와 전담예술가의 차이, 춤 기교가 아닌 자신의 몸을 알고 싶어 하는 참여 시민의 실제적인 요구, <서울무도회> 발표가 커뮤니티 워크숍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사전워크숍 이후에도 춤바람 커뮤니티의 전담예술가들은 월례 포럼을 통해 진행 경과를 공유해 왔다. 6월 18일 월례 포럼에 기록팀이 참석했을 때는 전담예술가들이 입문 과정의 도입기를 지나 한창 커뮤니티와의 관계가 무르익을 무렵이었다. 포럼은 전담예술가가 자신이 담당하는 커뮤니티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과 자신의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다른 분들이 느낀 바나 조언을 해주는 형태였다. 발제자 대부분은 커뮤니티의 열기에 감동을 받는 동시에 자신이 커뮤니티와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위치에 서야하는지 고민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전담예술가는 젊은데 커뮤니티 구성원 대부분이 중장년층일 경우 생활의 공통적인 부분이 적어 친해지고 신뢰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커뮤니티와의 작업이 시민과 함께 예술작품을 만드는 과정인지, 전담예술가가 커뮤니티를 돕고 보조하는 역할인지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고민이 많았는데 이는 시민의 참여가 의무화된 것이 아니고 작품창작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 태도와 능력적 측면에 대한 고민과 맞닿아 있었다. 즉, 커뮤니티의 순수한 가치와 춤에 대한 의무적 학습 과정을 충돌하는 요소로 보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서울댄스프로젝트의 타 프로그램인 춤단이 춤을 잘 추든 못 추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협력 관계로서 성공적인 공동체를 구축하였듯, 이 두 요소가 반드시 대립적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열린 사고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춤단 자유를 선물하다

취재 및 작성 : 이초영

2013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3기의 단원을 맞이한 춤단은 시민 춤꾼 100명이 모여 서울 곳곳의 장소에서 춤을 추었다. 지난 2년, 세종로, 조상의 멋이 남아있는 북촌, 한강 위 동호대교와 마포대교를 춤추며 가로질렀고 올해는 뚝섬한강공원과 반포한강공원에서 <게릴라춤관>을 펼쳤다. ‘불규칙적으로 벌이는 유격전’이란 의미를 지닌 ‘게릴라’처럼, <게릴라춤관>은 시민 춤꾼들이 내가 사는 마을, 가족과 친구가 다니는 출근길의 횡단보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내 중심가 등 일상 공간에 돌발적으로 나타나 춤으로 시공간을 채운다. 특히 춤단은 <게릴라춤관>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주체로서 춤을 매개로 시민의 곁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격인 <서울무도회>에서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춤단 3기는 2015년 6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되었으며 최연소 8세부터 최고령 68세까지 연령도, 직업도, 사는 지역도 다양하다.

오디션에 온 사람들

2015년 6월 20일, 100명의 춤단을 선정하기 위한 오디션이 있었던 날이다. 대기실에는 모여 있던 사람들 중에 반갑게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몇몇 무리가 있었고 가족으로 보이는 아이들과 엄마가 함께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긴장과 여유로움이 섞여 대기실 공기를 떠돌고 있었다.

오디션이 시작되었다. 지원자 157명 중 오디션에 최종 참여한 104명을 12개조로 나눠 조 이름을 정하고 소개멘트와 움직임을 짜서 연습할 시간을 주었다.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재치 있는 아이디어가 나왔을지, 어떤 안무를 보여줄지, 얼마나 단합이 잘 되었는지도 궁금했지만, 무엇보다 이번에 지원한 시민 춤꾼들은 어떤 사람들인지가 제일 궁금했다. 클럽에 춤출 작정하고 온 사람들 사이에서 춤추는 것도 쑥스러운데 서울 한복판에서 춤추겠다는 이 용감한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

- 특징 1 : 다양한 연령, 성별, 역할을 가진 사람들

춤단은 연령과 직업, 사는 곳, 살아온 환경이 다르지만 서로의 관계는 경계 없이 매우 유연하다. 특히 춤단 구성원들은 스태프, 전담예술가, 기록자와도 크게 구분을 짓지 않고 관계를 맺는 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춤단 양영석 씨는 “춤단에 다양한 연령대가 모여 있는 것이 제일 좋다. 춤단 활동을 통해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고 했다. “춤단은 커뮤

니티이므로 소통해야 하고 언어 대신 몸으로 서로 소통하는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다”고도 하였는데 구성원들이 함께 몸을 움직이고 직접 부딪히기 때문에 타인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된다는 뜻일 것이다.

- 특징 2 : 무용 전공자가 줄고 일반 참여자 늘어나

김기훈 전담예술가는 1기부터 3기까지 해가 바뀔수록 무용 전공자 비율이 줄어들었다고 했다. 올해 3기는 전공자 수가 한 손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이다. 또 다른 특징은 어릴 적 무용, 발레 등을 배운 사람, 학생 시절 댄스 동호회 활동을 한 사람, 성인이 되어 취미로 춤을 배웠던 사람 등 이미 춤을 경험한 이들이 많았다.

위의 두 가지 현상은 춤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있고 더 이상 전공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대중을 상대로 한 방송에서 춤을 테마로 한 방송 <댄싱 9>이 인기를 끌고 춤을 다루는 각종 예능코너가 등장하는 것도 아마 춤의 이미지가 점진적이거나 일상 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일 것이다.

- 특징 3 : 호기심에서 출발해 삶에 대한 관심으로

오디션 응시원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춤단 지원 동기는 ‘춤에 대한 호기심’이었다. 춤단의 문을 처음 두드린 사람들은 춤의 기술을 배워서 예술성 있는 몸짓과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반해 꾸준히 활동했던 단원들의 지원 동기는 소통과 교감에 더욱 집중되어 있었다.

올해까지 3년 연속 모두 활동한 춤단 단원은 5명, 2회 이상 활동한 단원은 14명이다. 세 번째 여름을 춤단과 함께한 정소화 씨는 “도시와 시민, 공간과 움직임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 궁금하다.”했고 박단비 씨는 “태평로 1일 춤단에 참여한 후, 미래에 시민 모두가 춤추는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일을 기획하고 싶어졌다.”고 했다. 개인마다 다른 이유로 춤단 활동을 시작한 이들은 시간이 쌓일수록 춤에서 몸으로, 몸에서 삶으로 그 관심이 점점 확장되고 있었다.

춤단을 ‘춤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밝넝쿨 전담예술가는 춤단에서 춤추는 기술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춤은 전문가적인 영역을 뛰어넘는 것이며 그런 시각에선 전공자나 비전공자는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춤은 다릅니다. 춤에서 전공자란 춤을 배우는 사람이라기보다 움직이는 특정 기술을 배우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저는 세계 춤을 배우는 사람들과 특정한 움직임의 기술이 아닌 춤 자체를 공유하고자 노력합니다.”

워크숍, 바깥으로 달려 나가기 위한 준비

춤단은 10회의 워크숍, 2회의 현장 리허설을 거쳐 다른 시민들을 만나고 서울과 교감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워크숍은 7월과 8월의 매주 토·일요일 양일간 4시간씩 진행되었으며 모든 참여자가 함께 모여 연습하였다. 1기, 2기에 비해서 3기의 출석률이 현저히 높았는데 김기훈 전담예술가는 춤에 대한 열정이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기훈 전담예술가가 이끄는 1부 <스텝 댄스>의 첫 순서는 ‘동작잇기’였다. 개인마다 자유롭게 동작을 만들며 몸을 깨운 뒤, 무대 가운데 한 명씩 나와서 본인만의 동작을 취했다. 그 동작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나와서 연결하고, 이어서 또 다른 사람이 연결했다. 서로의 몸이 포개지고 겹쳐지는 과정을 통해 협력과 소통을 일깨우는 프로그램이었다. 이어서 <게릴라춤관>과 <서울무도회>에서 군무로 추게 될 <스텝 댄스>, <퍼레이드 댄스>, <돛자리 댄스> 등의 동작을 배우고 동선과 대열을 점검했다.

밝녕쿨 전담예술가가 이끄는 2부 <드로잉 댄스>는 익숙한 춤의 기교를 버리고 공간이라는 3차원 도화지에 몸으로 그림을 그리는 상상으로 움직이며 감각을 깨우는 훈련이었다.

드로잉 댄스에 대해 밝녕쿨 전담예술가는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제가 처음으로 비전공자들과 만날 때, 효율적으로 움직임을 공유하기 위해 고민하다가 생각한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드로잉 하듯 움직이는 것이죠. 드로잉 댄스는 곡선을 지향하는데요, 곡선은 몸을, 공간을 이해하는 방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춤출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직접 해보면 훨씬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변정희 씨는 “드로잉 댄스를 통해 멈춤은 멈춤이 아니라 움직임이라는 것을 느꼈고 에너지를 고이게 만들어 발산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홍정민 씨는 “드로잉 댄스는 정해진 틀 없이 나를 잘 이끌어줬다. 현재 직업이 교사인데 우리 반 아이들이 스스로 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들을 시도하고 싶다.”고 했다.

8월 23일, <게릴라춤관>과 <서울무도회> 현장에 나가기 전, 마지막 실내 워크숍이 열렸다. 전체 군무와 그룹별 군무를 점검했고 버스킹 댄스 시 콜라보하는 악기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29일에는 반포한강공원, 30일에는 뚝섬한강공원의 리허설이 예정되어 있었다.

워크숍이 끝나갈 무렵, 김윤진 기획감독은 춤단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공공장소에서 판을 벌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주세요. 내 방에서, 또는 내 머릿속에서만 춤추는 골방댄스가 아니라 이 도시와 춤으로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도시 전체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공간을 쓸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하세요. <스텝 댄스> 하실 때 발을 최대한 많이 구르세요. 땅의 에너지를 마음껏 주고받으세요.”



깜짝 춤판이 열린 오후

‘서울 한강을 따라 출몰하여 일상의 공간을 춤으로 채우는 춤야유회’라는 캐치 프라이즈를 가진 <게릴라춤판>은 100명의 춤단이 참여하여 한강 공원 곳곳에서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과 함께 벌이는 흥겨운 춤판이다. 올해는 9월 5일 뚝섬한강공원과 9월 12일 반포한강공원에서 총 2회 열렸다.

<게릴라춤판>의 안무 의도를 묻자 김기훈 전담예술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춤야유회, 일반 시민과 어울려서 춤을 출 수 있는 야유회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만의 춤을 보여주고 사라지는 거죠. 갑작스럽게 춤을 맞닥뜨린 시민이 춤단과 함께 어울려 노는 공간, 장소, 시간을 만든다는데 목적이 있어요.”

<게릴라춤판>은 <스텝 댄스>, <퍼레이드 댄스>, <돛자리댄스>, <한강 그루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공원 전역과 주변 지형 및 형세를 활용하여 전체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스텝 댄스>와 <퍼레이드 댄스>의 경우 최대한 많은 사람의 시선을 한 눈에 끌 수 있는 공간에서 진행되었고 <돛자리댄스>는 시민이 자연을 느끼며 가족들과 휴식을 즐기고 있는 잔디밭에서, <한강그루브> 춤판은 수변무대에서 진행되었다.

- 서울 땅에 춤의 길을 여는 퍼레이드 댄스

길게 늘어선 <퍼레이드 댄스>는 우리나라 길놀이를 연상케 했다. 길놀이는 ‘탈놀이나 민속놀이 또는 마을곳에 앞서 마을을 도는 놀이’로 본격적인 판을 벌이기 전, 놀이를 알리고 사람들이 함께 놀이판에 참여해주기를 권유하는 의미와 놀이꾼 본인들의 흥을 돋우기 위한 축제적 의미가 담겨 있다.⁴⁾

뚝섬한강공원에서 춤단은 군무 <스텝 댄스>를 통해 시민들의 시선을 끌었고 시민들이 모여들어 두 겹 세 겹 원을 형성하자 이 군중을 뚫고 나가면서 길을 열기 시작했다. 반포한강공원에서는 잠수교에서 퍼레이드를 시작해 잔디밭까지 이르렀다.

춤단은 피리부는 사나이를 쫓듯이 그들 선두에 선 이동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따라 춤을 추며 걷거나 뛰었다. 탁 트인 전망 때문인지 달리는 춤단의 표정에서 환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그들이 일렬로 늘어서 다리를 건너고 공원을 가로지르자 유모차를 끌고 부부가 춤단 꼬리에 붙어 행진을 하고 반대 측으로 주행 중인 자동차 안에서 창문을 열고 구경을 했다.

4)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한국학중앙연구원



독섬한강공원



반포한강공원 잠수교

- 돛자리 댄스와 100인의 독무

퍼레이드가 피크닉장에 이르자 춤단은 잔디밭 전체를 누비며 적극적으로 시민들 가운데로 뛰어 들었다. 가족, 연인 또는 친구들이 앉아 있는 돛자리와 텐트를 둘러싸고 춤을 권유했

는데 대다수 시민들은 춤단의 깜짝 출현에 놀랐다가 이내 웃는 얼굴로 바뀌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뚝자리 댄스>의 세부구성에는 '100인의 독무'가 포함되어 있다. '100인의 독무'는 춤단 100명 전체가 한 모습으로 보이는 동시에 개개인이 돋보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박녕쿨 전담예술가는 '100인의 독무'를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말했다.

“100인의 독무'는 춤단이 집단으로서만 존재하지 않길 바라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 작업의 형태로 드러난 것입니다. 군집 속에서 각자 이야기를 통해 개개인이 선명해지면 집단도 선명해지죠. 춤단의 모든 사람이 춤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이 무척 중요해요. '100인의 독무'는 100개의 결과물을 보는 것과 같아요.”





- 할머니와 아이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한강그루브 춤판

<게릴라춤판>의 하이라이트인 <한강그루브> 춤판은 시민들과 함께 신명나게 춤판을 벌이는 자리였다. 흔히 생각하는 완성된 공연이 아님에도 꽤 많은 사람이 춤단의 에너지에 흥미를 보이며 자리를 뜨지 않고 구경을 했다. 춤단은 시민에게 다가가 직접 손을 내밀어 춤을 청했다. 누군가는 스스럼없이 수변무대까지 올라와 춤판에 참여했고 또 누군가는 소심하게 춤단이 내미는 손을 잡고 일어서 계단에서 어물쩍 춤을 추었다.

다양한 사람들이 공원을 노닐고 있었기에 인상적인 장면이 연출되었다. 뚝섬한강공원에서는 에스닉 퓨전밴드 '두번째달'의 연주와 퓨전국악밴드 '고래야'의 '사랑가'에 맞춰 활동보조기를 의지하여 앉아있던 할머니가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팔을 뻗어 춤을 추셨다. 반려견을 데리고 나온 아주머니가 개와 함께 춤추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아이들은 아빠와 엄마의 손을 잡아끌며 춤추는 대열로 들어갔고 휴일 오후를 즐기러 나온 외국인들은 흥미로운 광경을 휴대폰에 사진으로 담았다.

반포한강공원에서는 가족으로 보이는 무리 중 어머니를 무대로 이끌었더니 어린 아들이 따라 나오면서 옆에 앉은 형의 손을 잡아끌며 함께 나가자고 청했다. 70대 어머니와 40대 두 아들, 20대의 젊은 춤단 여러 명이 함께 춤추는 모습에서 어른과 청년, 어린아이가 한데 어울리는 동네잔치 광경이 연상되었다. 또한, 지나가던 외국인 여자 두 명이 무대로 올라와 30여 분을 마음껏 춤춘 후 무대 옆에 내려놓았던 자신들의 가방을 챙기고 유유히 떠나는 일도 있었다.

기록팀도 분주히 뛰어다녔던 오후가 나름 힘들었는데 춤단은 전혀 지친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 뜨거운 몸을 식혀주는 강바람,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폭신한 잔디밭의 감촉, 다른 시민의 웃는 얼굴과 서로 주고받는 눈빛, 이 모든 게 춤단의 활력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춤단 한 명, 한 명의 웃는 얼굴이 무척 빛났다. 춤추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던 일탈의 시공간. 이날은 춤추는 시민이 오롯이 즐거울 수 있는 하루였을 것이다.



한강그루브 춤판





즉흥적으로 참여 중인 시민들

인터뷰 | 자유로운 춤에 반한 춤단

몇 달에 걸친 춤단의 경험은 사람들을 점차 변화시켰다. 춤을 '자유'라는 단어로 표현했고 특별한 기술을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나의 춤'을 출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했다. 아울러 춤단 활동을 통해 일상이 달라졌음을 직접 말하고 있었다.

아래의 기록은 3개월 동안 워크숍과 <게릴라춤판>의 쉬는 시간을 이용해 틈틈이 모은 춤단의 인터뷰로 내가 춤추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무용 전공자, 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언젠가 함께 춤출 수 있는 파트너라고 여기게 된 학생, 챗바퀴 돌 듯 집과 회사만 다니다가 주말에 춤을 추면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직장인의 목소리 등을 들을 수 있었다.

#1

서울에 온 지 10년 되었다는 도상훈 씨는 획일화되는 서울에서 갈 곳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느낀다며 도시경관 정비 전에 자주 걷던 피맛골에 현재는 가지 않는다고 한다. 그는 춤단 활동 후, "이 도시에 대한 감정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춤단의 의미를 도에서 혼자 춤추는 것뿐만 아니라 한강을 건너고, 대교를 걷고, 도시가 가진 공기를 느끼며 시야가 넓어지는 과정"이라며 '도시에게 말 걸기'를 하는 <게릴라춤판>과 <서울 무도회>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2

오랜 시간 사교댄스를 즐겼던 김명열 씨는 "콜라텍에서 추는 춤은 누군가의 주도로 끌려가는 춤이지만, 춤단에서 추는 춤은 자유롭다."고 했고 여동생 김명희 씨는 "여기서 내가 만든, 나의 춤을 추는 게 좋다."고 답했다.

#3

'타고난 몸치라서, 배운 적이 없어서'라는 선입견은 춤에 접근하기 어려운 선을 스스로 긋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종훈 씨는 "댄스동아리를 하는 친구를 보면 춤을 못 추면 힘들어하더라. 춤단에서는 춤을 추지 못해도 즐길 수 있다."라고 했다. 임성희 씨는 "박영쿨 선생님이 '미쳐야 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미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살면서 이렇게 미치도록 춤춰본 적이 없다."며 매우 흐뭇해했다.

#4

첫 <게릴라춤판>을 마친 배슬기 씨는 "춤추다가 시민인 척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덜 긴장되었다."며 웃었고 윤수빈 씨는 "실내 워크숍에선 한강의 풍경을 상상했는데 리허설 때 진짜 강을 보니까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오늘 탁 트인 한강이 주는 느낌이 훨씬 강렬했다"고 느낀 점을 전했다. 변정희 씨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춤의 치유력으로, 각박하고 바쁜 서울이 따뜻하고 여유로운 곳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5

춤은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지영애 씨는 "잔디밭에서 호응하는 시민이 많아서 좋았고, 한강 그루브파티 무대에서 신명나게 춤추는 시민들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들이 즐거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6

<게릴라춤판>이 시민에게 더욱 다가가서 교감의 장이 되길 바라고 있는 김철우 씨는 “첫 <게릴라춤판>이 낯설었고 잘 출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는데 한번 추고 난 후, 나는 춤출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반포에서의 두 번째 <게릴라춤판>을 끝마치고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7

“전 개인적으로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게 너무 기뻐고, 그 사람들이 내 근처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행복했는데, 정말 이렇게 소중한 멋진 사람들 모두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제 삶이라 함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갔다가 취업해서 결혼하는 방향만 고민하는 삶이었는데, 더 즐겁고 많이 표현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페이스북, 정대웅 씨)

#8

“지난 주 뒤풀이를 마치고 집에 가는 택시에서 이들은 신기한 존재가 아니라 솔직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몸으로 표현했던 것들이 참으로 솔직한 것이었지요. 그래서 당당했던 것이고요. 저에겐 몸으로만 뭔가를 표현한 적이 없었던 터라 신기하게 느꼈을 테죠. 그런데 이들이 내 주위에 있는 시민이었다니! 모든 히어로가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는 듯 느껴지기도 했지요. <서울그루브나이트>에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를 하는 모습에서 저에겐 그들 또한 히어로로 보이기도 했었지요. 그래서 오늘 출근할 때 평소와는 다르게 사람들을 물끄러미 지켜보기도 했지요.”

(페이스북, 선명엽 씨)

인터뷰 | 춤단에게 화답하는 시민

<게릴라춤판>이 열리는 뚝섬한강공원과 반포한강공원은 모이는 사람들의 연령대와 구성이 서로 달랐다. 뚝섬한강공원의 경우, 어린아이를 안거나 유모차를 끌고 온 가족단위 방문객부터 아웃도어 등산복 차림의 중년 아저씨와 아주머니들, 지팡이 또는 전동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모두 볼 수 있었다. 반포한강공원의 경우에는 학생과 청년들, 젊은 부부와 가족 방문객이 대다수였다. 중·고등학생 친구들끼리 모여 앉아 수다를 떨거나 연인들이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 어린아이와 잔디밭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 엄마와 아빠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들은 갑자기 나타난 춤단의 퍼레이드를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수변무대까지 따라와 함께 춤을 추기도 했다. 그들에게 <게릴라춤판>에 대한 소감을 들었다.

#1

독섬 나눔장터에 참여하러 온 '꽃보다 힐링'팀은 어른 5명과 어린이 6명으로 구성된 가족 참여팀이었다. 독섬유원지 광장이 제일 잘 보이는 맞은편 편의점 2층 테라스에서 <게릴라춤판>을 보고 있었다. 멀리서도 그들이 흥겨워하며 춤을 추는 모습이 잘 보였다.

“그냥 동호회 활동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자원활동가가 안내책자를 줘서 행사인 걸 알았죠. ‘우리 아이들도 시켜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애들이 먼저 뛰어 내려가서 같이 춤을 추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애들, 저 춤추는 사람들 쫓아서 잔디밭으로 가 버렸어요. 춤추는 사람들이 무척 즐거워 보여서 우리 애들 찾으러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신나서 같이 소리 지르며 몸도 막 흔들었어요. 특히 열린 공간에서 흥겹게 춤추는 것이 뿌듯하고 시원해 보여요. 내년엔 우리들도 참여해보고 싶어요. 무엇보다 장터에 참여하러 왔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광경을 볼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2

서울댄스프로젝트 자원활동가인 류지영 씨는 춤단 윤수빈 씨의 친구이다.

“수빈이 덕에 서울댄스프로젝트를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춤을 추는 것, 춤을 관심사로 가진 사람들을 모아주는 것이 좋아 보여요. 올해는 자원봉사하면서 즐기자는 생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내년에 춤단에 지원할 생각도 있어요. 이런 행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알게 된다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3

판소리 강사활동 경험이 있는 신금지 씨는 산책하러 나왔다가 <게릴라춤판>을 보게 되었다.

“독섬유원지역 2번 출구에서 하는 모습 보고 수변무대까지 따라왔어요. 춤추는 사람들도 즐거워 보이고 저도 즐거워요. 같이 춤추자고 끌고 나갔으면 했을 텐데 나이가 많아 보여서 그런지 아무도 안 끌고 나가더라고요. 괜히 아쉬웠어요. 이 많은 사람이 함께 춤 연습을 한 거예요? 많이 연습한 게 느껴져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춤추는 건 나이제한이 있나요? 없으면 저도 같이 해보고 싶어요.”

#4

미국 플로리다에 거주 중인데 잠시 귀국하여 친구를 만나서 <게릴라춤판>을 보게 된 김현주 씨는 무대에 올라 춤단과 함께 적극적으로 춤을 췄다.

“저는 오늘 앞에서 춤을 췄는데, 아직은 많은 사람이 공개된 장소에서 춤추는 것을 쑥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주면 좋겠어요. 막상 앞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에 나가는 게 힘들잖아요? 사람들의 욕망과 감성을 탁 트려 주면 돼요.”

#5

27살 동갑내기 커플인 이예린 씨와 한상완 씨는 오리보트를 타러 독섬한강공원을 찾았다.

(이예린) “잔디밭에서 돛자리 펴고 놓고 있었는데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춤

추는 모습을 보고 행사를 하나보다 했어요. 그분들이 저희 댄스대를 둘러싸고 춤을 추셨을 때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크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지금은 춤을 추지 않지만 한국무용을 배운 적이 있고 남자친구는 중학교 때 댄스동아리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한상완) “댄스동아리를 할 때는 길에서 춤추는 게 아무렇지 않았어요. 지금도 길을 걷거나 다닐 때 춤을 춰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을 의식하겠죠.”

(이예린) “저는 학원에서 무용을 배울 때 보여줄 사람이거나 발표 기회가 없어서 재미가 없었는데 이렇게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발표하는 모습이 좋아 보여요. 기회가 된다면 남자친구와 함께해 볼 생각이 있어요.”

#6

반포한강공원에서 만난 홍예원 씨는 주말마다 가족나들이로 어디를 갈지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를 찾아보는 편인데, 이번 주 행사 중 <게릴라춤판>이 제일 재미있어 보여서 남편과 아기와 함께 일부러 왔다고 한다.

“잔디밭에서부터 같이 이동해서 수변무대까지 왔는데 매순간마다 춤추는 사람들이 되게 즐거워 보였어요. 흥이 넘치더라고요. 특히 라이브 밴드 음악이 정말 좋았고 맞춰서 춤추는 사람들이 더욱 멋있게 느껴졌어요. 아까 잔디밭에 있을 때는 우리가 같이 섞여 있는 느낌이 들었는데 수변무대로 오니까 춤추는 사람들은 공연자, 우리는 관객이 되어 딱 나뉘는 느낌이 들어요. 재미있어요. 끝까지 다 보고 갈 생각이예요.”

#7

주영희 씨는 우연히 지나가다 본 <게릴라춤판>이 무척 좋아서 다음 행선지를 포기하고 공원에 그냥 주저앉아 구경했다고 한다.

“한 시간 내내 남미에 여행 온 기분이었어요. 춤과 음악이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여행하는 기분을 느끼게 해줘서 무척 고맙네요. 이런 공연이면 매주 보고 싶은데 다음 주도 해주시면 안 되나요?”

#8

자전거 동호회 회원인 김상혁 씨와 노명균 씨는 잠시 쉬려고 반포한강공원에 들렀다.

“유학시절에 느꼈던 이국적인 느낌을 서울에서 그대로 느낄 수 있다니 그 점이 무척 좋네요. 그리고 밝은 곳에서 춤추는 게 보기 좋아요. 즐거워 보이고 활기찬 느낌이거든요.”

#9

72세 이훈자 씨는 일원동 대정복지관 사진반에 다니고 있는데 음악분수 사진을 찍으러 왔다가 <게릴라춤판>을 보게 되었다.

“젊은이끼리, 가족끼리 모여서 춤추는 것을 보니까 재밌고 좋아요. 우리 사진반이 올림픽공원에서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오늘 분수 사진을 찍으러 왔다가 보게 된 건데 춤추는 사진도 함께 전시하고 싶어졌어요. 사진반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다음 주에 선유도로 사진 찍으러 가자고 해야겠어.”

춤 매개로 공동체를 키우는 전담예술가

- 공동체와 예술가, 공동의 목표 설정이 중요

김윤진 기획감독은 ‘전담예술가의 역할’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밝힌 적이 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공동체의 욕구와 예술가의 욕구가 서로 충돌하죠. 이 단계에서 초기 공동의 목표 설정이 중요해요. 목표를 맞출 때 예술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예술가로서의 욕구와도 분명히 맞닿아 있어요. 목표 설정이 끝난 다음엔 예술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과정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공동체가 주체로 참여하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죠.”

요약하자면 예술가가 춤을 매개로 공동체 형성을 디자인한다는 의미인데 독일의 유명 무용가 피나 바우쉬가 연출한 2008년 <콘택트호프(Kontakhof)>, 콜롬비아 출신의 안무가 알바로 레스트레포의 <몸의 학교(el Colegio del Cuerpo)>가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콘택트호프(Kontakhof)>는 남녀 간 사랑에 대한 모든 감정을 춤으로 만들었다. 2000년 초반엔 65세 이상의 노인들과 공연했고 2008년에는 청소년들과 작업 후 무대에 올랐다. 현대무용에 무지했던 청소년들이 이 작품의 참여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본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인정해 나간다. 함께 완성해 무대 위에 올리는 과정을 통해 춤으로 공동체의 속성을 되살리고 참여자들에게 성취감과 행복을 느끼게 한다.

또, 알바로 레스트레포는 콜롬비아의 지속적인 내전의 제일 큰 피해자인 아이들을 위해 1997년 고향으로 돌아와 <몸의 학교(el Colegio del Cuerpo)>⁵⁾를 열어 춤을 통해 인간의 몸을 다루는 새로운 윤리의식을 심어주고 스스로에 대한 존경을 가르쳤다. 마음의 상처와 분노, 억압된 감정을 춤으로 표현하여 자신의 몸을 새롭게 인식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세계 각국의 초청공연을 다니며 춤으로써 꿈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선택지를 갈 수 있게 된 아이들은 예술의 중요성을 체험하게 된다.

서울댄스프로젝트의 경우 전담예술가와 기획단은 서울이란 지역과 시민이 춤을 매개로 만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가 되어보는 과정을 중요하게 보았다. 시민예술작품을 만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질적인 개인들이 스스럼없이 어울릴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였고 이렇게 단합된 공동체는 <게릴라춤판>, <서울무도회>를 통해 내가 살고 있는 땅, 서울을 평상시와는 다른 느낌으로 접하게 되는 것이다. 타인에 대해 가슴을 열어가는 과정의 막바지에는 춤단 외의 시민에게도 손을 내미는 안무가 기다리고 있다.

- 춤추는 의미와 경험, 즐거움을 자율적으로 찾을 수 있어야

‘커뮤니티 댄스에 대한 견해’와 ‘춤단에게 춤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김기훈, 밝넝쿨 전담예술가에게 던졌다.

“저는 목적성 있는 커뮤니티 댄스를 추구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춤을 경험하고 즐겨

5) EBS 동영상 참조

움을 찾기 위해 자율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더욱 중요해요. 요즘 춤추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춤에 대한 단면인 기술만 본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잘 추든 못 추든 서로 추는 모습을 보고 함께 춤추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춤단이 해야 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춤단에게 춤의 의미는 자꾸 변하고 있을 거예요. 보여주는 것과 보여지는 것. 처음엔 보여지는 것에 대해 고민하다가 증반쯤 보여주는 것을 고민하다가 막상 현장에 나가면 즐기게 되는 거죠. 저는 ‘내가 춤추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매우 다양할 수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취야 한다고 늘 주장하죠. 춤단이 춤추는 이유를 깨닫고 카타르시스를 느낄 때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제겐 춤단이 행복해지는 순간을 보는 것이 먼저예요. 특히 춤단이 스스로 놀 때 무척 즐겁습니다.”

(전담예술가 김기훈)

“춤단은 춤을 통해 스스로 본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닐까요? 내 이야기를 듣고 싶은 욕구가 발현되면 춤을 통해 각자의 의미로 살아나는 것이죠.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상황으로 빚대어 말씀드리자면, 춤을 정식으로 시작한 지 올해 22년이 되었는데 긴 시간 동안 춤 안에 있었고 국내외를 여행하며 많은 춤을 보았고 경험했어요. 그리고 점점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는 춤으로 인해 눈과 몸이 즐겁고 또 무척 흥분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긴 여행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큰 흥분을 경험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춤단과 보낸 시간들 때문이죠. 아시겠지만 춤단은 미쳤어요. 미친 춤단이 너무 좋았고 고마웠습니다.”

(전담예술가 박영쿨)

춤단을 넘어 사회적 관계로의 확장

워크숍 또는 <게릴라춤판>이 끝난 후, 춤단은 쉽게 헤어지지 못했다. 삼삼오오 모여 꽤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눈 후 집이 같은 방향인 사람끼리 간단한 뒤풀이를 하러 가자며 함께 일어서는 일을 몇 번이나 목격했다. 사이가 매우 돈독해진 이들은 <게릴라춤판>이 열리기 직전, 잠깐의 공백 동안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다. 2인 3각 놀이와 목마 싸움을 했고 생일파티를 열어주는 등, 누군가 주도하거나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늘 함께 놀거리를 찾아서 현재를 즐기고 있었다.

또 춤단에는 60여명 이상이 함께 속해 있는 스마트폰 단체채팅방이 있다. 사소한 잡담부터 활동 관련 의견을 나누고 갑작스러운 모임(번개)을 소집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춤단 채팅방은 개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 매우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 3기 춤단에서 만들어진 소모임은 5개

춤단은 모여서 춤만 춘 것이 아니다. 3기 춤단에서 만들어진 소모임은 총 5개로,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의 3개 어학 모임과 드로잉, 독서감상의 2개 취미모임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단체채팅방을 통해 시간과 지역이 겹치면 갑작스러운 모임(번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 <서울무도회>가 끝난 후, 38명이 참석한 MT가 강촌에서 1박 2일로 진행되기도 했다. 춤단 활동은 단원들은 각자 지닌 재능을 나누는 현상으로 나타났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친구와 동료, 이웃을 얻게 되었다. 이는 춤단을 통해 더 나은 일상을 꿈꾸고 이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뜻이다.

- 춤과 관련된 다른 활동으로 이어져

2015년 10월, 페이스북 춤단 그룹에 <할로윈데이 플래시몹>을 제안하는 임성희 씨의 글이 올라왔다. 임성희 씨는 “기본안무도 있지만 자유로운 몸짓을 추구하는 플래시몹을 생각하고 있다. 다양한 춤을 이어가고 싶다.”고 했다. 이 글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약 20여 명의 춤단 단원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연습실을 대관하여 정해진 날짜에 모여서 함께 연습했다.

이런 활동은 춤단으로 축매된 에너지가 춤단을 통해 경험한 방식과 유사한 형태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성원 중 한 명이 함께 행동하는 재미를 추구하며 일상의 이벤트를 만들고 안무까지 만들어 모든 일을 주도하였다. 재미있는 놀이를 함께하겠다는 열정의 결과이며 그 열정으로 인해 본인이 일하는 노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 춤이 주는 위로와 행복

춤단의 모집 공고 중 ‘함께 춤추는 것이 이 험한 세상을 헤쳐갈 수 있는 작은 위로가 되리라 희망하는 자.’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과연 참여자들은 춤단에서 위로를 받았을까? 행복해졌을까?

그간 춤단을 취재하면서 춤단의 얼굴 표정을 유심히 관찰하였다. 그들은 항상 웃고 있었고 자유로웠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과 몸짓에 기록팀도 따라 웃었다. 행복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덩달아 행복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 해 가을에는 서울 땅을 밟고 굴렀던 춤단 뿐 아니라 춤단 활동에 공감하며 지지의 표현을 했던 시민들도 만날 수 있었다. 긴 여정을 함께 해 온 100명의 춤단과 동반자가 되어 줄 시민이 있기에 앞으로도 춤단의 활동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게 된다.



<커뮤니티 댄스 랩> 춤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실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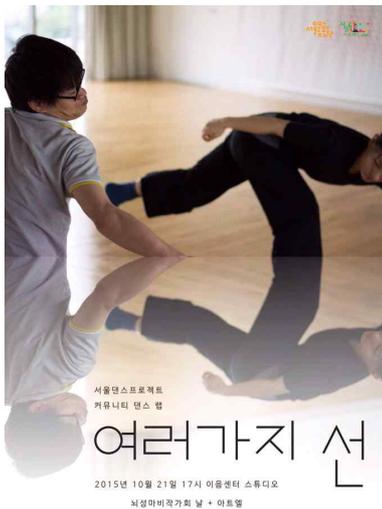
취재 및 작성 : 현승인

<커뮤니티 댄스 랩>(이하 댄스 랩)은 2013년 춤바람 커뮤니티의 기획형 커뮤니티를 운영했던 경험을 토대로 커뮤니티 댄스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이다. 실험적인 예술형식을 통해 주제, 사람, 지역 등 삶 속에서 춤이 만날 수 있는 영역의 저변을 넓힘으로써 춤의 공공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댄스 랩의 목적이다.

2014년부터 총 4개의 프로젝트를 댄스 랩으로 진행해 왔다. ‘아트엘’의 노경애 전담예술가는 뇌성마비 작가회 ‘날’과 함께, ‘댄스씨어터 틱’의 김윤규 전담예술가는 창신동 지역에서 2년에 걸쳐 작업을 진행하였다.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두 개의 프로젝트와 달리 커뮤니티 댄스를 다각적으로 탐구하고 해석해 보기 위한 연구형 프로젝트도 실시되었다. 서로 다른 장르에 속한 예술가들이 각자의 예술을 기반으로 춤을 탐구한 책자 <정체없는 신체>를 2014년 출간하였으며, 2015년에는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춤추는 시민을 기록하다> 기록집을 위한 취재 및 연구 작업을 진행하였다.

틀린 몸? 다른 몸이다

‘아트엘’ 노경애 + 뇌성마비 작가회 ‘날’



- 몸의 아름다움은 표준화될 수 없다

언젠가부터 전문가의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는 춤은 아름다운 몸의 움직임을 표준화하여 이에 맞는 몸과 그렇지 않은 몸을 구분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아름다운 춤을 추기에 적합한 아름다운 몸이라는 통념이 생겨난 것이다. 하지만 과연 아름다움은 표준화될 수 있는 개념일까? 커뮤니티 댄스의 첫 번째 실험은 이 같은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 ‘아트엘’의 노경애 전담예술가와 뇌성마비 작가회 ‘날’의 댄스 랩 프로젝트는 몸의 ‘정상적’ 아름다움이라는 문제를 탐구한다.

뇌성마비 작가회 ‘날’은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시각 예술인들이 주축인 모임이다. 장애로 인해 말과 몸짓으로서는 자기 생각을 전달하기 어려운 ‘날’의 뇌성마비 작가들은 자신의 느끼는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시각 미술 작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날’ 작가들에게 춤이란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아트엘’의 노경애 전담 예술가는 뇌성마비 장애인의 몸과 몸짓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이 뇌성마비 장애인들의 움직임을 보는 것 자체를 힘들어해요. 그건 우리가 그들의 움직임이 정상적이지 않고 틀린 몸짓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몸의 중심축과 균형점이 다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장애인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죠. 제 눈에는 그들이 보여주는 움직임의 언어는 정말 아름다워요. ‘날’의 춤을 통해 많은 사람이 아름다움이란 무엇이고, 옳은 것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담예술가 노경애 인터뷰 중)

- 춤을 통해 자신의 몸을 긍정하다

뇌성마비 작가회 ‘날’과 노경애 전담예술가가 만난 것은 2013년 춤바람 커뮤니티에서였다. 시각미술 작업을 계속 해오던 ‘날’의 작가들은 새로운 영감을 얻기를 원했다. 그들은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는 시도를 해보고 싶어 춤바람 커뮤니티 모임에 응모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자신들의 움직임을 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춤이란 정상적인 몸을 가진 사람이나 하는 것인 줄 알았고 자신의 의지대로 몸짓을 놀리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자신들의 움직임이 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커뮤니티 댄스를 하면서 ‘날’의 뇌성마비 작가들은 작품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받았고 생활의 활력까지 얻게 되었다.

2013년 ‘날’의 활동은 커뮤니티 댄스의 가능성을 넓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평가를 바탕으로 2014년 노경애 전담예술가와 함께 처음 시도되는 댄스 랩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처음 그들의 실험 주제는 장애인 미술작가와 비장애인 무용가라는 상이한 성격의 두 집단이 교류를 통해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었다. 미술 작가와 무용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남은 서로의 아름다움에 주목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만들어냈다. 전년까지만 해도 장애인의 몸짓을 터부시하며 외부 사람들에게 보여주길 부담스러웠던 ‘날’의 작가들이 자신들의 몸짓을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자신감을 바탕으로 장애인만이 표현할 수 있는 움직임을 오픈 스튜디오를 통해 관객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였다.

- 몸이 빚어내는 추상적 아름다움

2015년 작가회 ‘날’과 노경애 전담예술가는 탐구 주제를 심화시켜 장애인, 비장애인 등의 집단적 범주로 접근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개개인마다 다른 몸의 아름다움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사람마다 몸이 모두 다른 만큼 그 몸이 보여주는 움직임도 다 다르죠. 서 있는 방법도 앉아있는 방법도 달라요. 아름다움에는 여러 가지의 층위가 있어요. 추상의 아름다움이죠.”

(전담예술가 노경애 인터뷰 중)

노경애 전담예술가와 작가회 ‘날’은 몸들의 추상성을 탐구한 결과를 <여러 가지 선>이라는 제목으로 2015년 오픈 스튜디오에서 펼쳐 보였다. 개개인의 몸을 선으로 파악하면 사람마다 그 선의 모양새가 다르다. 작자가 동작을 빚으면서 표현할 수 있는 선의 모양도 다채롭다. 무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을 없애고 각각의 신체가 여러 개의 선이 되어 겹겹이 그려지는 추상 미술처럼 연출되었다. 기록팀은 아름다움의 통념을 해체하는 이 현대적인 작업 앞에서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날’ 작가들이 의지가 엿보이는 움직임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였고 모두가 저마다 아름답게 느껴졌다. 무대 위의 그들도, 그들의 몸짓을 지켜보는 관객들도.



- 커뮤니티 댄스에서 예술가의 역할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

“저는 커뮤니티 댄스에서 예술가의 역할은 발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옳다고 생각하는 관념들은 대다수 고정관념이거나 편견일 때가 많아요. 고정된 관념을 깨고 다양한 관점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이 커뮤니티 댄스의 목표죠.

어린이 커뮤니티, 노인 커뮤니티, 장애인 커뮤니티 등 모든 커뮤니티의 특성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각 커뮤니티의 가능성을 꼬집어내는 예술가의 방식 역시 모두 다를 수밖에 없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매뉴얼을 가지고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에어로빅 같은 체육 활동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정해진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과를 수치로 나타내기가 쉽지 않겠죠. 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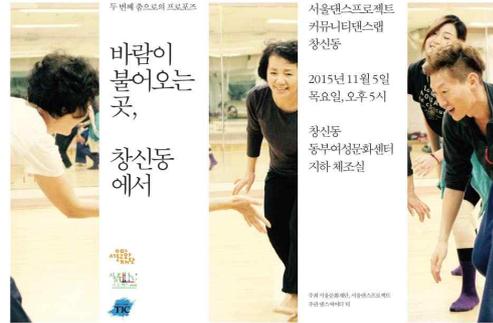
저는 분명히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장애인들의 삶에 변화가 생겼고, 저희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는 관객들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죠.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제안하는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춤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한 걸음씩 내딛고 있는 거죠. 단지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에요.“

(전담예술가 노경애 인터뷰 중)

예술가, 한 마을을 품다

‘댄스씨어터 팀’ 김윤규 - 창신동

- 창신동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아껴주
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춤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은 커뮤니티 댄스를 할 수 있을까? 김윤규

전담예술가가 창신동 프로젝트를 통해 던진 질문이다. 창신동은 옷을 만들어 동대문 시장에 옷을 납품하는 옛 봉제공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서울 안에서도 상당히 낙후된 지역 중 한 곳이다. 김윤규 전담예술가는 창신동 지역으로 침투해 춤을 통한 지역 문화의 개선을 꾀하고자 했다. 이 시도는 굉장히 도전적이다. 지역 외부 사람이 춤을 통해 지역 문화를 바꾸려면 지역 침투와 춤에 대한 장벽 낮추기라는 두 가지 어려운 미션을 동시에 달성했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윤규 전담예술가는 왜 이런 어려운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창신동은 노동 공간과 거주 공간이 뒤섞여 있는 공간이에요. 한 번이라도 와본 사람은 알겠지만 ‘아직도 서울에 이런 곳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만큼 낙후된 공간이죠. 창신동의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재봉틀을 움직여요.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는 그냥 이분들의 고생하는 몸을 잠깐 이나마 풀어드릴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춤을 통해 이분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다면 더더욱 좋고요.

예전에는 노동과 춤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모내기 춤처럼 노동에서 출발한 춤이 많은 편이죠. 노동의 노고를 춤을 통해 풀어내곤 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노동은 춤과는 완전히 구별돼요. 그 누구도 노동을 하면서 춤을 추지 않아요. 그래서 춤을 통해 그들의 노동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풀어주고 싶었어요. 춤추듯이 노동하고, 노동하듯이 추면 좋지 않을까 하는 거죠.“

(전담예술가 김윤규 인터뷰 중)

- 아이들과 놀면서 지역으로 스며들기

하지만 춤을 통해 지역의 노동 문화를 바꾸는 일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지난했다. 2014년 커뮤니티 댄스를 함께 할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 처음 창신동 봉제공장에 들어갔을

때 이들은 번번이 거부를 당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봉제 공장에서 외부인인 그들은 일을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였다. 봉제공장 바깥에서도 그들은 찬밥신세였다. 사람들의 반응을 얻기 위해 거리 즉석 공연을 하려 해도 완성된 옷과 옷의 부자재를 운반하는 수많은 오토바이들에게 그들은 길을 막는 걸림돌이었을 뿐이다.

그들이 외부인이란 점이 문제였다. 우선은 지역 사람들에게 친근한 존재가 되어야 했다. 김윤규 전담예술가와 ‘댄스씨어터 틱’은 창신동 지역에 스며들기 위해 새로운 대상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바로 창신동 골목 곳곳에서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이었다. 창신동의 특성상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낮 시간을 또래 친구들과 함께 골목과 놀이터를 뛰놀면서 보낸다. 김윤규 전담예술가는 이런 지역적 특징에 착안해 정해진 시간마다 창신동의 아이들과 함께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아이들과 친해지자 창신동의 지역 주민도 점점 이들에 대한 경계심을 놓기 시작했다. 오픈 스튜디오 역시 아이들 주도로 진행했다. 아이들이 예술가와 함께 거리 즉흥 공연을 하거나 창신동 투어 프로그램 기획을 직접 짜는 식이었다.

2014년엔 지역적 접근의 일환으로 창신동에서 활동 중인 ‘000간’과도 협력하였다. “춤, 커뮤니티, 삶을 탐구하다!”라는 공통주제를 잡고 ‘000간’을 플랫폼 삼아 정기 프로그램을 열기도 하고 워킹 프로세스 포럼 <창신동에서 길을 묻는다 - 하나의 시선, 노동과 춤>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 다시 어른들에게로

2015년에는 처음 목표로 돌아가 창신동에서 노동하거나 거주하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역시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공간이 없었다. 어른들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댄스를 하려면 춤추기 위한 일정 공간이 필요한데 상황이 녹록치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창신동 동부여성센터의 한 홀을 대관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대관 시간이라는 두 번째 문제에 봉착했다. 봉제 노동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이른 아침 아니면 늦은 저녁밖에 없었는데, 그 시간에는 기존의 센터에서 제공하는 다른 프로그램이 이미 자리하고 있어 대관이 어려웠다.

가능한 시간대에 공간을 대관한 후 워크숍 참가자를 모집하려고 각 공장마다 얼굴을 비추고 거리에서 전단지 돌렸지만, 워낙 바쁘게 돌아가는 창신동에서 참여자들은 좀처럼 모이지 않았다. 결국 워크숍은 아주머니 두 명을 주축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두 명이 다른 지역민을 초대하기도 해서 다섯 명까지 모이는 날도 있었다. 워크숍 내용은 즉흥 무용, 아리랑 군무 등이었으며 주민들이 요구했던 요가도 슬쩍 곁들여 배웠다. 즉흥 무용을 위해서는 전문 기타리스트가 합류해서 즉흥 연주를 해주었다.

2015년에도 창신동 아이들과의 만남은 지속되었다. 댄스 랩 워크숍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김윤규 전담예술가와 ‘댄스씨어터 틱’ 구성원들, 기타리스트는 아이들이 있는 놀이터로 향했다. 기타치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문화예술 경험이 언젠가는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 바람이 불어오는 곳, 창신동에서

2015년의 댄스 랩 오픈 스튜디오에서는 워크숍 참여자 두 분, 놀이터 아이들, ‘댄스씨

어터 틱'의 무용수들이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선보였다. 전문 무용수와 두 분의 창신동 아주머니들은 기타와 트럼펫 연주에 맞춰 즉흥적으로 춤을 추었다. 그 사이를 아이들이 굽이굽이 물 흐르듯 뛰놀아 다녔다. 아이들은 공연할 때도 깔깔거리며 시끄러웠고 공연 전후로도, 사회를 볼 때도 시끄러웠다. 김윤규 전담예술가는 능청스럽게 관객을 향해 항상 이렇게 시끄러우니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웃었다.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아이들 손을 잡고 찾아온 다른 어른들은 현관 근처에 줄을 지어 앉아 계셨는데 자리를 거의 뜨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셨다. 아이들이 떠들 때면 폐가 되니 조용히 하라며 주의를 주었지만 그것도 말 뿐이고 특별히 아이들을 제지하지는 않았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창신동에서>라는 이름이 붙은 이 공연에 창신동 외부 관람객들은 상당한 흥미를 보였다. 춤을 추는 무용수와 워크숍 참여자의 공연만 공연인 것이 아니라 춤에 반응해 따라 뛰는 아이들, 다시 이 아이들에게 반응하여 참견하는 어르신들까지 창신동 지역의 문화가 고스란히 즉흥 공연에 담긴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 지역과 만나는 일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비록 공연은 두 분만 하셨지만 저는 창신동 어르신들이 구경 왔다는 것만으로 성공했다고 봐요. 참여해주신 두 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셨어요. 열정이 대단하신 분들이예요. 심지어 연습도 하고 오세요.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저희는 어디로 가면 돼요?’ 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고마움과 동시에 미안함을 느껴요. 다음에 또 언제 할지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니까요. 2년간의 경험을 통해 저희가 느낀 것은 커뮤니티 댄스가 지역에 자리 잡기 위해선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

요하다는 거예요. 일, 이년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끊임없는 상주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아야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힘들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댄스프로젝트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거든요. 커뮤니티 댄스를 통해 지역의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선 장기간에 걸친 작업이 필요해요.

(전담예술가 김윤규 인터뷰 중)

춤 바깥에서 춤을 들여다보다

연구형 댄스 랩 프로젝트

연구형 댄스 랩 프로젝트는 커뮤니티 특성을 연구하고 춤에 대한 다각적인 사유와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2014년과 2015년에 연구 모임을 각 1개씩 운영하였다.

- 정체 없는詹체

<정체 없는詹체>는 박성태 사무국장(정립건축문화재단)을 주축으로 총 10명의 각기 다른 장르에 속하는 예술가들이 프로젝트 그룹을 운영한 사업이었다. 시인 김경주와 심보선, 아티스트 남화연, 차지량, 조영주, 건축가 김영옥과, 디자이너 정진열, 큐레이터 김장언, 예술평론가 방혜진이 모여 공동체와 춤에 대한 사유를 자신의 언어로 들려주는 심층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물로 책자를 발간하였다.

- 춤추는 시민을 기록하다

지금 이 글이 실린 <춤추는 시민을 기록하다>는 <서울무도회>에 시선이 집중되어 행사적 성격의 축제로 대중적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는 서울댄스프로젝트의 속살을 파고들어 질적인 가치를 탐구, 해석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장을 장기간 참여 관찰하면서 시민, 예술가, 관객 등을 인터뷰하였다. 특히, 사진 작업도 질적 가치를 기록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고 스펙터클한 군무 씬 뿐 아니라 공동체성과 개개인의 생생한 표정 등을 드러내는데 많은 비중을 두었다.

<체어댄스> 하루 3분, 춤을 춥시다

취재 및 작성 : 현승인

현대인이 하루에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 직장에서 앉아서 일하는 시간, 운전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 학교·도서관 등에서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집에 돌아와 편안한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휴식을 취하는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현대인은 하루 평균 12시간씩 앉은 상태로 생활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하루 4시간 동안 앉아서 생활하는 것이 건강에 매우 치명적이라고 말한다.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 습관이 신체의 신진대사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척추 및 관절이 경직됨에 따라 피로도가 가중되어 근골격계 질환 발병 위험도 커진다. 비만, 허리통증, 심장질환까지 현대인이 앉고 있는 질환들이 '앉기'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앉은 생활 습관이 우리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직장을 그만두거나 공부를 중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문가들은 '앉기'로부터 비롯된 현대인의 질환들을 극복하기 위해선 바른 자세로 앉는 습관과 더불어 앉아서 생활하는 틈틈이 운동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수록 스트레칭 등을 통해 앉은 상태로 경직된 몸을 자주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통해 활동량을 늘리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여덟 가지 동작으로 구성된 동영상

<체어댄스(Chair Dance)>는 일상에서 지친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잠시나마 풀어주고자 만들어졌다. 사무 공간, 학교 등 의자가 있는 곳이라면 누구나 쉽게 출 수 있도록 개발된 <체어댄스>는 어깨 바운스, 가슴롤링, 손목 웨이킹 등 여덟 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었다. 이 여덟 가지 주요 동작들은 앉아서 사무를 보거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쉽게 miming 수 있는 근육들을 풀어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동작들로 약 3분간의 경쾌한 음악을 따라 춤을 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피로가 풀리고 생활 활력에 도움을 준다.

서울댄스프로젝트는 <체어댄스>를 활용한 건강한 춤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교육 영상을 개발하고 배포하였다. 또한, 외부 연계 워크숍, 체어댄스 UCC 공모전 등 사람들의 일상 안으로 춤을 자연스럽게 침투시키기 위한 활동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9월 19일에 열린 <서울무도회>에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체어댄스>를 배우고 춤춰볼 수 있도록 별도의 체험부스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현재 서울문화재단은 설문 조사 결과에 따라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네 시가 되면 전 직원이 경쾌한 '라쿠카라차' 리듬에 맞춰 <체어댄스>를 춘다. 처음 기획단은 조직에서

시간에 맞추어 의무적으로 춤추는 것이 또 하나의 강제적인 국민체조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했다. 때문에 정기 시행에 앞서 시범 운영을 하였고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취합해 정기 시행을 결정하였다.

기록팀도 우연히 <체어댄스> 시범 운영하는 날 재단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춤을 따라 추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쭈뼛하게 시작했는데 음악을 따라 리듬을 타다 보니 긴장이 풀렸고 서로의 엉성한 춤을 보며 웃기도 하였다.

서울메트로에 가다

2015년 10월 23일, <체어댄스> 외부 연계 워크숍인 <체어댄스 워크숍 : 서울메트로>에 서도 비슷한 어색함과 유쾌함을 목격했다. 이 워크숍은 서울메트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기록팀은 일반 기업과 비교해 딱딱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공기업에서 진행되는 워크숍이니만큼 참여하는 직원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걱정을 다소 하고 있었고 예상대로 행사가 엄숙한 분위기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간단한 아이스브레이킹을 거치고 본격적인 <체어댄스> 교육 시간이 되자 참여자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다. 근로 시간에는 사용할 일이 없었던 근육을 음악에 맞추어 움직이자 내면에 감춰두었던 흥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분출되기 시작했다. 머리는 몰랐던 춤의 즐거움을 몸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업무 외의 '딴 짓'을 허락하지 않는 사무실에서 익숙하지 않은 춤을 다짜고짜 추는 것은 민망하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한 번 바람이 들면 멈출 수 없다는 '춤바람'이라는 말처럼 사무실,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체어댄스>는 개인의 건강 뿐 아니라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활력적으로 바꿔놓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서울댄스프로젝트의 외부 연계 워크숍은 일회적인 행사라서 한계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매일 3분씩 유쾌하게 춤을 출 때 일상에서 일어날 변화를 우리는 쉬이 상상해볼 수 있다. <체어댄스>는 작지만 큰 가능성, 쉽게 춤으로 통하는 통로이다.

하지만 모든 문화예술 활동이 그렇듯 <체어댄스> 역시 체계적인 조직과 만날 때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춤이 펼쳐지는 공간, 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춤은 이름만 춤인 것으로 제약되거나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사람들의 자발적인 의사를 수렴해 나가면서 보급해 나가는 일의 중요성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체어댄스> 교육 영상



10월 23일 '서울메트로' 직원 대상 워크숍



※ 체어댄스란?
 춤과 노래, 즉각적인 즉흥성과 리듬을
 체어댄스는 의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춤입니다.
 쉽고 단정하면서도 멋지게 보여주고, 가운뎃길, 손목 체어댄스 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춤으로
 일과 외 시간에 힐링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힐링의 효과가 높습니다.
 특히 고령, 체어댄스로 힐링과 몸매관리,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 공모대상
 서울시 소재 중·고 학생(초·중·고 학생)으로 구성된 팀 누구나

■ 공모기간
 2015.10월 15일 ~ 11월 15일 / 내외국 포함

구분	신청기간	심사기간	발표기간	대상
초등부	2015.10.15 ~ 2015.10.31	2015.10.31 ~ 2015.11.15	2015.11.15 ~ 25일	25명 내외
중등부	2015.10.15 ~ 2015.10.31	2015.10.31 ~ 2015.11.02	2015.11.02 ~ 25일	25명 내외
고등부	2015.11.02 ~ 2015.11.08	2015.11.08 ~ 2015.11.15	2015.11.15 ~ 25일	25명 내외

※ 수상한 팀은 서울메트로 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체어댄스 축제'에 초청되어 공연할 수 있습니다.

■ 공모분야

분야	대상	제출사항	제출처	문의처
초·중·고등부	서울메트로 문화재단	체어댄스 영상 (3분 이내)	서울메트로 문화재단	02-2600-2111
초·중·고등부	서울메트로 문화재단	체어댄스 영상 (3분 이내)	서울메트로 문화재단	02-2600-2111
초·중·고등부	서울메트로 문화재단	체어댄스 영상 (3분 이내)	서울메트로 문화재단	02-2600-2111

■ 공모대상
 서울메트로 문화재단 직원 대상
 서울메트로 문화재단 직원 대상
 서울메트로 문화재단 직원 대상

■ UCC 공모전 시상

구분	대상	시상금	시상처
최우수상	1팀	100만원	서울메트로 문화재단
우수상	2팀	50만원	서울메트로 문화재단
佳作상	3팀	30만원	서울메트로 문화재단

■ 체어댄스 UCC 공모전 참여 TIP

- 1. 신청서 작성 시, 서울메트로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 2. 신청서 작성 시, 서울메트로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 3. 신청서 작성 시, 서울메트로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 UCC 공모전 시상
 서울메트로 문화재단 직원 대상
 서울메트로 문화재단 직원 대상
 서울메트로 문화재단 직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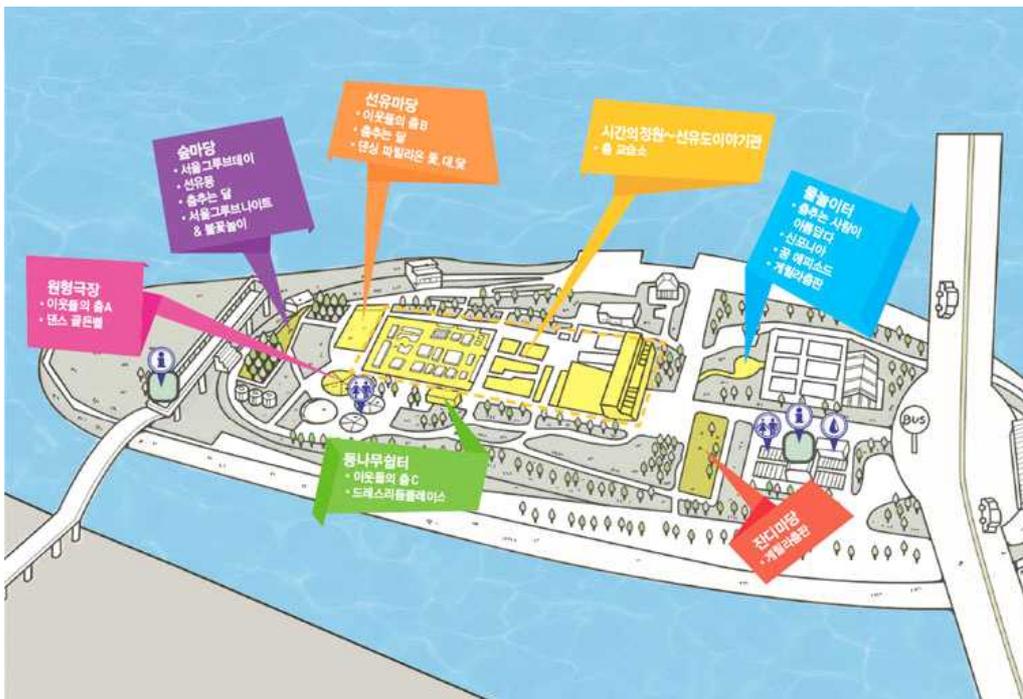
UCC 공모전

<서울무도회> 시민의 곁에서

취재 및 작성 : 김유진

<서울무도회>는 춤단과 춤바람 커뮤니티 구성원들, 무용가들, 음악가들이 모여 한 해 동안 진행했던 서울댄스프로젝트의 의미와 결실을 서울 시민에게 선보이면서 춤으로의 초대를 권유하는 큰 잔치였다. 선유도를 하루 동안 춤추는 섬으로 만들자는 미션 아래 워크숍 과정을 통해 시민 춤꾼으로 거듭난 춤바람 커뮤니티와 춤단, 그리고 시민 자원활동가 300여 명의 참여자들이 춤 촉진자가 되어 무대를 채우면서 공원을 방문한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졌다.

주요한 프로그램은 춤단의 <게릴라춤판>, 춤바람 커뮤니티의 <이웃들의 춤> 공연, 시민 참여로 진행되는 <댄스 골든벨>, 대규모 야외 클럽 <서울그루브나이트> 등이었으며 그 외 보급형 춤 프로그램인 <체어댄스> 체험, 공원 여기 저기 배치된 <춤 교습소>, 비보잉, 브라스 밴드와 전문무용수들의 공연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부담 없이 편하고 속이 짝 찬 시민 축제

9월 19일 오후 2시. 처음 <서울무도회>가 열리는 선유도에 들어섰을 땐 기록팀의 할 일을 하자는 마음이었고 축제에 대한 큰 기대가 없었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그러나 하루

종일 선유도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서울무도회>가 한 편의 긴 공연처럼 느껴지면서 어느새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마치 가을 한낮의 꿈을 한바탕 꾸 것처럼.

주말 나들이 온 시민을 <게릴라춤판>으로 이끄는 것으로 시작된 행사는 다양한 춤바람 커뮤니티의 공연 발표로 이어졌다. 십여 개가 넘는 춤바람 커뮤니티의 공연은 연습 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인상적이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주부, 중년 남성, 아이들, 젊은 작가들이 한 자리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보따리를 한꺼번에 풀어헤치자 마치 한 마을을 배경으로 하는 서사드라마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한참을 구경했고 사람들이 들고 남에도 객석은 지속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마도 <이웃들의 춤> 공연 중 어느 하나는 관객 자신이 공감할 수 있는 ‘내 이야기’였을 것이다.

커뮤니티 댄스에 특별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공원 여기저기를 어슬렁대다 보면 곳곳에 배치된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목격하거나 참여할 수 있었다. 시간의 정원에는 예술가가 꾸린 <춤 교습소>가 비밀스럽게 배치되어 있었다. 등나무 쉼터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도시의 잉여물로 딱딱딱 옷을 제작해 볼 수 있었고 물놀이터에서는 비보잉 공연을 구경할 수 있었다. 여러 개의 작은 프로그램들은 출사를 나온 청년들, 웨딩 촬영 중인 신혼부부들, 유모차를 끌고 나온 가족들과 전혀 어색함 없이 공존하면서 주말의 풍경을 풍요롭게 하였다.

산책처럼 진행되던 낮 프로그램과 달리 저녁 어스름에 시작된 <댄스 골든벨>부터는 좀 더 프로그램 규모가 커져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맛이 있었다. 누구나 신청해서 막춤 대결을 펼쳤던 이 대중적인 프로그램은 지나가던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적으로 낚아챘다. TV 쇼처럼 매끄럽게 행사를 진행해 나가는 사회자의 목소리에 무대 가까이 끌려온 사람들은 지인들과 누가 과연 우승할지 예측하느라 분주했다. 영광의 자리는 나이가 지긋하심에도 젊은 열정을 불살라 인기를 끌었던 어르신에게로 돌아갔다.

<댄스 골든벨>의 흥행몰이가 지나가자 숲마당에 준비된 메인 무대에서 전문무용단연합회 ‘이구동성’의 공연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잔디밭에 모여 앉아 저녁 식사를 하면서 공연 관람을 하였고 저녁 산책을 나온 시민도 거리로 나온 전문 공연을 즐길 수 있었다.

8시 반이 되자 브라스 밴드 ‘바스커션’의 연주로 분위기가 급격히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관악기의 목격하면서도 화려한 사운드는 사람들의 심장을 울리며 함께 춤추게 만들었다. 그 춤은 버스킹 행렬이 되어 메인 무대로 향했다. 닐리리맘보, 옹혜야, 강강술래처럼 민요를 EDM으로 편곡한 노래들이 대기를 울리던 메인 무대 <서울그루브나이트>에는 유명인도 전문 무용수의 무대도 없었지만 대미를 장식하는 느낌이 확실했다. 하루 종일 선유도에서 춤을 즐겼던 사람들이 모두 한데 모여 거대한 에너지의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지막을 장식한 것은 춘향전 사랑가 장단에 맞춰 어울렁더울렁 춤추는 불꽃이었다.







관객, 아마추어, 전문가, 스타의 경계를 지우다

축제를 만드는데 참여한 경험이 꽤 있지만 <서울무도회>는 이제껏 보아왔던 축제와는 구성 형식이 좀 달랐다. 이미 정형화된 거리 축제들은 마치 대형마트의 진열장과 같은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인적이 드문 낮에는 무작위로 나열된 소규모 프로그램을 관객들이 취사선택해 구경하다 저녁 즈음이 되면 메인 무대에서 이름 알려진 예술가나 연예인의 공연을 구경하는 형식 말이다. 혹은 전문 예술인이 등장하지 않는 순수한 주민 잔치인 경우 발표자들의 가족이나 친구가 아닌 이상 구경거리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곤 했다.

반면, <서울무도회>는 낮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프로그램이 마치 공연처럼 유기적 흐름을 갖고 있었다. 즉, 공원을 하나의 거대한 무대로 사용하면서 시간에 따른 기승전결을 갖추고 사람들이 무대 안에서 노닐다 보면 리듬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연출되어 있었다. 이러한 축제의 구성 형식은 자연스럽게 나들이 나온 시민까지 이 공연의 관객인 동시에 출연자로 만드는 효과를 생성하는 듯 보였다. 어슬렁어슬렁 구경하는 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 실컷 즐기다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이, 혹은 중간부터 관심을 갖고 다가오는 이 등이 각자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관객, 아마추어, 전문가, 스타처럼 등급으로 나뉜 무대가 아니라 춤추는 시민, 공원을 방문한 시민, 예술가들이 자연스럽게 각각의 몫을 하면서 나란히 무대 위에서 있었던 것이다.

예술가들, 역량을 모아 시민의 곁에 서다

<서울무도회>는 표면상 서울댄스프로젝트에 참여한 시민들이 무대를 이끌고 갔지만 다양한 예술가들의 협력적 작업이 참여자들의 뜨거운 에너지를 분출하도록 돕는 기초적 토대가 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예술가들은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섬세하게 시민을 위한 촉판을 깔아주고 있었다.

예를 들어, 어설픈 몸짓에도 춤바람 커뮤니티의 공연이 흥미로웠던 이유는 전담예술가들이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생생한 감수성과 목소리를 살려내기 위해 연극적인 방식을 상당 부분 채택했기 때문이다. 전담예술가는 자신을 표현하는 데 집중하는 커뮤니티 구성원 개개

인을 모아 미학적 질서를 구축하였다. 예술가의 세계를 혼란된 무용 동작을 통해 표출하는 방식 대신, 시민의 이야기를 모아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프로듀싱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게릴라춤판> 역시 사람들의 일상적 틈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된 기획 작품으로 춤을 추는 시민이 잔디밭에 앉아있는 시민에게 손을 내미는 과정을 삽입함으로써 시민과 시민의 만남을 성사시킨다. <춤 다:방>, <게릴라춤판> 때도 그랬지만 <서울무도회>의 음악 역시 절묘했다. 한국적 미감을 느낄 수 있는 동시에 현대적이어서 공감하기 좋은 곡들이 사용되었다. 혹은 브라스 밴드처럼 소리의 힘이 강렬해서 사람들의 몸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장치로써 음악이 사용되었다.



시민의 곁에서 시민의 언어를 쌓아올려 만들어낸 이 축제는 옛 마을 장터와 서커스처럼 한바탕 흥을 돋우는 분위기를 도시적인 느낌으로 재탄생시켰다. 환상적이지만 평범한 삶의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은, 친근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것으로.

<서울무도회>는 서울댄스프로젝트의 전 과정 중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주었는데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순수 문화예술의 여집합인 것처럼 여겨지는 현실 속에서 예술가들의 역량을 집합해 시민의 에너지를 모아 표출하는 장(場)을 여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목소리, 생활 속의 예술, 시민이 주인공인 지역 축제라는 무수히 많은 허무한 표어들 속에서 하나의 현실 가능성 있는 커뮤니티 아트 모델을 찾아낸 기분이었다.

세 번째 기록

지평을 넓히기 위한
진단과 전망 모색

서울댄스프로젝트의 몇 가지 이슈

세 번째 기록에서는 전담예술가 워크숍, 춤바람 커뮤니티 월레포럼, 춤바람 커뮤니티 단체대표 평가회의 참관과 기획감독 및 사업단과의 상시적 인터뷰, 춤단 전담예술가 및 시민단원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된 몇 가지 이슈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하나의 사업이 그 영향력과 한계를 현장에서 검증받기 위해 통상적으로 최소 3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때문에 기획단은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 고민하는 중이며 이 기록집 역시 지나온 3년을 조망하면서, 그동안 여력이 없어 부족했던 질적인 성찰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서울댄스프로젝트가 보여준 성과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춤단이나 춤바람 커뮤니티가 서울댄스프로젝트 외의 공간에서도 춤 무대를 자발적으로 열어가면서 춤을 통한 커뮤니티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잠재적 가능성은 첫 번째, 두 번째 기록을 통해 다루었으므로 이제 그 한계점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커뮤니티 댄스의 대중 보급 확산이 가능한가?

우선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참여 수요 측면에서 서울댄스프로젝트는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사람들의 가장 큰 의심은 춤과 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존재하는 엄숙한 한국 사회에서 과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을 표현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에 관한 것이다.

이런 우려에 비해 첫째 서울댄스프로젝트의 참여는 활발한 편이었으며 이듬해 세월호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사업이 성장하는 추세가 보였다. 춤단 지원 신청자는 첫째에 93명이었고 이듬해에 170명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모집과 오디션 사이에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고 우울해하며 오디션 참석이 힘들다는 의사를 전달한 시민들이 많았다. 결국 춤단 최종 오디션 응시자는 104명이 되었다.

춤바람 커뮤니티는 10여 명의 구성원을 모으고 무용연습실까지 직접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첫째에는 서튼아홉 개가 선정되었다. 그러나 두 번째 해에는 모집 기간 중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으며 신청 커뮤니티가 2013년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 개개인이 신청하면 되는 춤단에 비해 진입장벽이 훨씬 높은 커뮤니티가 타격을 더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2015년에도 계속되고 있는 사회적 침체 분위기가 사람들의 자발적 모임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침체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더해서 경험재라는 춤의 특징도 보급 확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경험재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기 전에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상업 영역에서는 경험재인 문화 상품을 이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형화된 인식들에

맞추거나 반대로 정형화된 인식들을 혁파하는 이미지로 마케팅하는 경우가 많다. 커뮤니티 댄스는 상당히 고맥락적인 예술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대중적 접근의 마케팅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렇다. 커뮤니티 댄스가 지역 문화센터 등에서 시행 중인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춤의 기법이 아닌 “몸의 이해와 표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기록팀이 취재 중에 목격한 바에 따르면 전담예술가 대부분이 내 몸과 타인의 몸을 이해하고 그 몸이 놓인 공간을 지각하면서 몸과 몸, 몸과 공간 사이의 관계를 존중하는 협력 작업으로 워크숍을 이어나갔다. 이는 장르를 뛰어넘는 통합적 접근 방식인데 바로 이 통합성이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실제로 겪어보면 이 통합적 접근이야말로 사람들이 만족하는 지점임에도 홍보를 통해서 알리기는 어렵다. 사업 참여자의 추천이나 사업 홍보물을 접하는 시민들은 커뮤니티 댄스를 단지 ‘색다르고 어려운’ 장르의 일종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런 고민이 2015년 4월 23일 열렸던 춤바람 커뮤니티 전담예술가 사전워크숍에서도 엿보인다.

“총 15개의 커뮤니티 중에서 12개 단체가 커뮤니티 댄스 경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춤을 계속 추고 싶은 의지가 있고 춤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더구나 특정장르의 춤이 아닌 몸의 표현에 중점을 둔 난해한(?) 움직임은 춤이라고 인식하는 경지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들이 춤추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나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 자아발견이라는 자신감의 획득, 개인의 상처를 위로 받은 치유의 경험’을 포함한 강렬한 삶의 의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문 무용가들의 춤추는 이유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인식으로 생각됩니다. (중략) 이번에 참여하는 단체 중 3팀은 춤바람 커뮤니티의 신규 단체입니다. 기존단체의 지속적 요구가 기쁘면서도 신규단체가 3팀밖에 지원하지 않았다는 현실을 우리는 예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춤바람커뮤니티의 성격이 점점 분명하게 이해되고 있다는 반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춤을 추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홍보부족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담예술가 김민정 발제 중)

춤단과 춤바람 커뮤니티의 차이점을 확인하다

서울댄스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을 꼽으라면 단연 춤단과 춤바람 커뮤니티라 할 수 있다. 이 두 프로그램은 모두 시민이 참여하여 장기 워크숍을 진행 후 <서울무도회> 등에서 발표 무대를 갖는다. 거의 몇 달간의 워크숍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의 관계가 끈끈해지고 춤에 대한 편견을 깨면서 이해도 높아지게 된다.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목적이나 개괄적인 프로세스는 흡사하지만 세부적인 운영으로 들어가면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특히 개개인이 모여 공동체를 구성하느냐, 이미 구성된 공동체로 스며드느냐에 따라 공동체의 특징, 전담예술가의 역할 등이 달라졌다. 아래는 3년의 사업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발견한 차이점을 정리해 본 표이다.

	춤바람 커뮤니티	춤단
커뮤니티 구성경로	일상에서 이미 구성된 커뮤니티 ⇒ 춤을 도구로 사용	개인으로 참여 ⇒ 워크숍 과정 통해 춤공동체 형성
커뮤니티 성격	동질적, 소규모 커뮤니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부, 작가, 육아 모임 등 동일한 정체성을 중심으로 구성. 그러나 각각의 커뮤니티는 생활상에 따라 서로 성격이 다름. 각 지자체 문화재단 등에서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시민 동호회 성격이 강함. 	이질적, 중규모 커뮤니티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기 다른 연령의 남녀로 구성. 공동체 구성되는 과정 속에서 이질적 정체성의 타인과 관계 맺기. 커뮤니티의 외연이 유연하고 느슨한 편으로 함께 과정을 겪어가는 스타프, 전담예술가, 기록자 등과 경계 없이 관계 맺음.
예술가 역할	강사/퍼실리테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는 이미 형성된 상태이므로 전담예술가는 기존 커뮤니티의 성격에 적응해 가면서 좋은 춤 콘텐츠의 제공을 주요한 역할로 상정하게 됨. 춤콘텐츠가 개별 커뮤니티의 형성/유지/변화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설계는 명확치 않은 편임. 전담예술가도 혼란스러워함. 커리큘럼 설계 시 포괄적으로 자기 몸에 대한 자각, 타인과의 신체 부딪침을 통해 본인 및 주변 관계를 성찰한다는 방향성 정도가 보임. 	춤을 매개로 공동체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감독 및 전담예술가가 주도적으로 공동체 형성을 위한 프로세스를 춤 콘텐츠와 결합하여 기획함. 공연 제작 과정을 예술감독이 주도하는 방식과 유사함. 청소년과 함께 한 피나 바우쉬의 2008년 <콘택트호프>,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2003년 <봄의 제전>이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음. 시민이 주인공으로 활동하는 만족감을 주는 동시에 서울이라는 지역 및 시민과 결합하려는 명확한 목표를 지님. ⇒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성을 함양.
강점	다양한 커뮤니티, 일상적 접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의 일상적 공간에서 춤을 만나기 때문에 춤의 대중화에 도움이 되어 보임. 일상의 결이 담긴 <서울무도회> 의 <이웃들의 춤> 발표 무대에 감동을 받았다는 피드백 다수. 친근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일상적 관계 속으로 파고들기 쉬움. 	강력한 춤에 대한 동기부여와 새로운 공동체의 파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춤단 경험을 통해 춤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에까지 이르게 되며 춤을 통한 새로운 시도를 꿈꾸게 됨. 더 나아가면 자신의 생활권 내에서 커뮤니티 형성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가능성.
위험 요인	환기효과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 공간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환기 효과가 떨어져 삶의 질의 변화 과정까지 이르지 못하고 콘텐츠만 서비스되는 형태로 멈출 가능성. 보급 및 확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뮤니티를 직접 구성하고 공간을 구할 수 있어야 참여가 가능하므로 사업 참여 접근성이 매우 떨어짐. 	오디션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를 구성하는 과정 중 ‘우리가 서울을 변화시키는 앞선 주체’로 선택되었다는 자부심이 작동하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자부심은 양면성이 있어서 춤단은 특별하고 평범함을 뛰어넘는다는 분위기에 취할 수 있음. 선발된 자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보편적 시민의 보편적 일상을 존중할 수 있는 해석들(인문학)에 접속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해 보임.

축제와 발표는 꼭 필요한가

시민참여 문화예술 프로그램에서 축제나 발표회에 대한 문화예술 계통 전문가들과 예술가들의 의견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축제나 발표회는 손쉽게 성과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강조하다 보면 정작 측정이 어려운 과정의 질의 중요성이 간과된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수년간에 걸쳐 실제 시민의 요구보다는 관광 목적에서 개최된 획일적인 축제가 남발된 탓에 새로운 축제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기존 축제들의 축소 병합 필요성을 외치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댄스프로젝트 내부에서도 <서울무도회>와 같은 큰 규모의 축제, 워크숍 이후 작품 발표회 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편이다. 직접 시민과 살을 섞고 있는 전담예술가들은 발표 무대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는 편이었다.

Q. 마지막에 춤을 꼭 발표해야 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의견은 어떠한가?

“나는 보여주려면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덜하다. 춤단이 해내서 느끼는 성취감은 있을 수 있지만, 성취감은 다른 것에서도 느낄 수 있다. 그것보다는 춤을 춘다. 나를 찾는 계기가 더 우선되어야만 춤추기가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3기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느낀 부분이다. 춤을 추면서 계속 나를 느끼고, 춤추는 즐거움과 춤 행위를 통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그들에게 여유를 줘야 한다. 이런 걸 전공자들도 잘 못 찾는데 자발적으로 느낄 수 있게 여유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보이는 모양을 만들어내는 건 전담예술가들의 일이다. 춤단이 아니라.”

(춤단 전담예술가 김기훈 인터뷰 중)

축제와 발표는 오히려 춤단과 춤바람 커뮤니티 참여 시민들에게 의미가 큰 것으로 느껴졌다. 애초에 <서울무도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경우를 제하면, <춤 다:방>, <게릴라춤관>, <서울무도회>와 같은 비일상적 경험이 주는 일탈적 충격이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저에게는 춤단이 아니었다면 그저 삭막하게만 느껴졌던 도시 속 보이지 않는 벽을 영원히 깨지 못했을 겁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신나게 춤추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 춤으로 인사하고 같이 노는 모습이 이제는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춤단에서 느꼈던 그 느낌으로 다시 서울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 춤단 김은혜씨)

“춤의 에너지가 뭘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말로 정의할 수 없지만 어제 선유도에서 강렬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엠티에서 한 숨도 안자고 왔기에, 선유도를 가면 서도 중간에 적당히 하다가 집에 돌아가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 육ㅋㅋ 춤단과 시민들이 춤을 추면서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와 열기가 계속 저를 고조시키더라고요 smile 이모티콘 춤의 에너지가 몸 속 깊숙히 파고들어 한동안은 춤단의 여운이 가시질 않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 춤단 변준한 씨)

춤바람 커뮤니티 단체대표 평가회의에서도 유사한 의견들이 있었다. 아이들이 발표하는 무대를 본 부모님들이 예술가처럼 자유로운 표현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고, <춤 다:방>에서 강렬한 에너지를 느껴서 내년이 기대된다고도 하였다. 은평재활원의 경우는 지적장애인들이 브레이크 댄스나 칼군무를 추지 않아서 불만이다가 선유도에 다녀온 후 내년에도 참여하겠다는 욕구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서울무도회>에 올해 첫 참여한 사람 중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겼다는 이도 있었다.

이런 시민들의 체험적 의견을 고려할 때 과연 시민참여 문화예술이 소소하게 일상의 것을 반복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으로 충분한지, 축제나 발표회 역시 중요한 과정 중 하나는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예술가들이나 전문가들이 시민의 요구에 좀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

공공기관과 시민 협력의 어려움

춤바람 커뮤니티 단체대표 평가회의에서는 공공기관 공간 사용의 어려움도 토로되었다. 여러 공공기관을 접촉해 봤으나 유희공간을 찾기 어려웠다고, 공간이 있는 경우도 관리인이 퇴근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저녁 시간 개방을 해주지 않아 고생한 이야기 등이 주를 이루었다. 평상시에 잘 빌려 쓰던 커뮤니티도 메르스처럼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일이 발생하자 공간 대여가 급작스럽게 취소되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다.

특히, 눈에 띄었던 점은 40대 이상 중장년 커뮤니티와 청년 커뮤니티 사이의 격차였다. 시민단체 활동이나 욕구 모임과 연결된 곳은 이미 인프라가 존재하여 어렵지만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가진 것으로 보였다. 이미 사회적 연대를 이루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높아 지역 기관들과 적절히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청년 단체는 외부적인 네트워크는 차치하고 내부적인 결속력을 만드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아는 사람들을 모아 공동체를 꾸렸지만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기 힘들어 단체 대표가 혼자 일을 이끌고 갔다고 한다. 구성원들에게 참여의 의무를 강제하기 어려워 워크숍을 오픈하고 한 번이라도 오고 싶은 사람은 다 오게 하였는데 심화과정에서 공연할 사람만 남아야 한다고 했더니 절반 가까이 누락되었다고 한다.

이 같은 차이는 세대별 인프라의 차이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의 중장년층은 공동체에 대한 경험이 자산으로 남아 있으며 실제로 인적 네트워크라는 사회적 자본도 있고 경제력도 있다. 반면, 지금의 청년층은 공동체를 꾸려본 경험이 희박하고 개인적 취향에 따라 개별 행동을 하는 것에 익숙하다.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를 아르바이트 등에 쫓겨 사는 경우도 상당수다. 한국 사회는 나이가 주는 권위도 상당해서 공공기관과의 접촉에서 청년이 불리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런 차이를 인식하고 청년층에게 접근할 때 과연 기존의 자발적 동호회 지원 방식이 유효한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출석은 의무적이어야 하는가?

청년층이 더 어렵기는 하지만 출석의 의무는 커뮤니티 전반에서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

이기도 하였고 춤단의 경우도 출판 한 번에 70명 전후가 출석하는 것으로 보였다. 전혀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기보다 개인 사정에 따라 참석했다 불참했다 하는 식이었다.

기획감독 및 기획단은 서울댄스프로젝트가 결과물로 평가하는 사업이 아니라 과정상의 참여가 중요한 지표이므로 출석률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며 평가회의에서 이 문제를 의논하였다. 이 때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지점은 발표 무대에 올릴 공연 연습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전담예술가들에게 그 부담이 오롯이 전가된다는 것이다. 마을 중심이거나 시민단체 등과 연계 있는 모임은 출석률 체크를 의무적으로 해서 조건을 충족시키는 곳만 하자고 하였으나 생활권역이 서로 많이 다른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는 어렵다고 하였다.

기실 이 문제는 그리 간단치가 않다. 커뮤니티 활동이 생활의 발목을 잡을 정도가 되면 그것은 일로 여겨지기 마련이고 그러면 자발적 동기가 저하된다. 반면, 아무리 일 외의 영역, 취미나 여가 활동이라고 해도 팬클럽 같은 곳에서는 비교적 강한 역할의 배분과 참여 강제가 존재한다. 일을 균형 있게 배분하지 않고 관심을 지속적으로 주지 않으면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애초에 합의된 규율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다.

출석률을 체크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출석이 최소한인가 등은 서울댄스프로젝트 기획단이 아닌 각각의 커뮤니티와 전담예술가가 내부에서 민주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면 좋을 듯하다.

커뮤니티 댄스 형식 실험이 중요하다

커뮤니티 댄스의 보급과 확산, 출석률의 확보, 공간 확보 등의 이슈는 모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얽혀있기 때문이다.

커뮤니티 댄스 보급이 어려운 이유는 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고맥락을 가진 순수예술 전반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유럽처럼 상당수의 시민이 일상에서 자신만의 연극이나 그림, 예술영화 등을 소비하고 있다면 지금처럼 홍보의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경험하지 않고는 도저히 선형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예술성과 대중과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 예술가들은 공공미술이나 커뮤니티 댄스처럼 시민 참여가 가능한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를 실험하게 된다. 출석률 확보의 문제는 강도 높은 노동이나 서울에서 지역적 삶이 거의 존재하지 않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취미 활동을 하는데도 '작정을 해야' 움직일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다. 공간 확보의 어려움 역시 관료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불신에 기반한 관리 문화, 공간의 계속되는 사유화 등과 관련이 있다. 때문에 이 문제들이 당장 해결되길 기대하는 것은 요원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기획단이나 참여하는 시민의 문제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재단이 일개인과 달리 구조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인자로서의 책임을 느낀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차츰 풀어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을 지원하거나 기다려주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당장 구조적 전복을 일으킬 수 없으므로 프로젝트의 점진적 개선을 위한 형식 실험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테면 현재 대부분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문화예술교육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마케팅 측면, 시민들의 접근성 제고, 활동 공간의 확장을 위한 새로운 형식이 시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마케팅 측면에서 보자면, 서울댄스프로젝트는 주요 일간지 홍보에 집중하고 있는데 보

완적인 방식이 더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몇 해 전부터 미디어의 분산과 경쟁이 심해지면서 매스미디어 광고의 위력은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지면광고 중심으로 돌아가던 신문사 제작 시스템이 모바일과 SNS와 같은 시대 조류를 좇아 통합 시스템으로 교체되는 것에 따른 기자 업무 변화를 예고하였다.⁶⁾ 이는 단순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이동이라기보다 성격이 단일하다고 가정되는 일반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파하는 방식에서 다중적인 성격으로 파편화 되어있는 대중을 상대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고대 앞 명물인 영철버거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영철버거가 경영난으로 폐업하자 고려대 정경대 학생회는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800만 원을 모으기로 하였다. 영철버거 대표 이영철 씨가 2004년부터 매년 2,000만 원을 기부하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영철 장학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에는 총 2,579명이 참여했고 총 모금액액은 6,811만 5,000만 원에 달했다.⁷⁾ 실제 사건은 오프라인에서 발생하고 이를 쉽게 전파하고 액션을 취하기 위한 소통 플랫폼으로써 온라인을 활용하는 이런 추세는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핵심은 오프라인의 사건과 인물에 있다. 첨예하게 경쟁적인 미디어 환경에서 독자들에게 의미 중심의, 참여 가능한 콘텐츠가 유효하다는 뜻이다.

서울댄스프로젝트는 3년에 걸쳐 시민출판을 길러냈다. 이들이 단지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자신들이 감동받았던 사건의 의미를 확산할 수 있는 참여 방안을 지원한다면 서울댄스프로젝트가 시민생활을 토대로 한 문화예술의 혁신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프로그램 측면으로 보자면, 커뮤니티 댄스가 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스스로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느껴진다. 지역, 공간과의 만남을 다양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험적인 발표 무대,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해서 접근이 어려운 워크숍 대신 일회적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들, 미디어나 인문학 등 타 분야와의 결합, 지역 및 관련 정책 등 다른 자원들과의 결합 등을 다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관계적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 실험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교육 프로그램에서 예술가-시민은 교사-학생으로 만나기 때문에 돌봄이 많고 끈끈해지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이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강력한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예술가에게 과부하가 걸린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최근엔 공간 중심의 거점 전략의 중요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마케팅에서 오프라인이 중요해지는 현상 등과 상관관계가 있다. 관계가 개인으로 파편화되고 대부분의 공공적인 도시 공간을 상업 영역으로 변화하면서 커뮤니티는 둘째 치고 우연하게라도 다른 이들과 마주쳐 관계를 맺을 계기가 사라지고 있어 결핍으로 인한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공간들이 과거와 다른 점은 센터 중심의 중앙 집중적 사업 전략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삼삼오오 마실 나오듯 들락거릴 수 있는 작고 전문적인 공간이라는 점이다.

공간 외에도 자유공모제와 같은 작은 공모전들이 인기이다. 규모가 크고 트렌드에 부합하는 연구 및 사업 주체들이 주는 피로감을 지양하고 자신 만의 연구 및 사업 주체를 다루고자 하는 욕망이 커지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보인다. 이런 최근 추세들은 충분히 서울댄스프로젝트의 프로그램에 접목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6) 한국기자협회, “잇따른 통합CMS 도입, 기자 업무 변화 예고”, 2015.11.11.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37800>

7) 헤럴드경제, “영철버거 새로운 출발 ... 학생들이 되살렸다”, 2015.11.13.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1113000034>

FGI | 시민참여 예술에 관한 확장된 논의

일시 : 2015년 10월 25일

장소 : 서울문화재단

김윤진 (서울댄스프로젝트 기획감독)

박병성 (매거진 더 뮤지컬 편집장)

김정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팀 팀장)

유상진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과장)

김유진 (기록집 PM, 문화기획자)

진행/글 : 현승인

공공성 안에서의 춤

오늘 FGI는 서울댄스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하여 여러 커뮤니티 사업에 대한 이야기로 논의를 확장해 나갈까 한다. 우선 커뮤니티 댄스에 대해 어떻게들 생각하시는 알고 싶다.

김정이 : 서울댄스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 춤이 공공영역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놀랍다고 생각했다. 어릴 적부터 동네 아주머니가 남편이 중동으로 일하러 간 사이에 춤바람 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나만해도 과거엔 춤은 안 좋고 위해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게 아니더라도 나에게 춤은 가을운동회 때나 추는 집단무 같은 것이었다.

기존에 무용가들이 시민을 하나의 오브제로 사용하여 자신의 작품으로 연결하는 작업들은 있었지만, 시민을 춤을 통해 예술적 주체로 끌어내려는 시도는 많이 못 봤다. 그래서 서울댄스프로젝트가 매우 흥미로웠다. 과연 가능할까 궁금하기도 했고. 미술계에서는 이러한 시도들이 커뮤니티 아트라는 이름으로 계속 성장해왔는데, 춤 영역에서는 서울댄스프로젝트가 거의 유일무이하지 않나 싶다.

유상진 : 성남문화재단이 2006년부터 해오던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사업에서는 동호회가 주로 강사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춤 동호회 역시 마찬가지다. <게릴라춤판>은 이와는 좀 다른 형태가 아닌가 싶다. 평상시의 동호회 활동과는 다른 특별한 체험이랄까? <게릴라춤판>은 오히려 <사랑방문화클럽축제>와 비교될 수 있을 것 같다. 원래 <사랑방문화클럽축제>는 각 동호회의 발표회를 모아 놓은 형태였다가 내부적으로 문제의식이 있어서 재단이 기획해서 퍼레이드나 콜라보레이션 등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개별 동호회 단위에서는 할 수 없는 특별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우리 고민 중에 동호회가 아닌 문화예술을 즐기는 개인을 어떻게 생활예술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을까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게릴라춤판>이 주는 시사점이 많다.

공동체의 개념을 확대해야한다

요새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동체라고 하면 지역공동체를 먼저 떠올리면서 아련하고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흔히 마을공동체라고 부르지 않는다.

유상진 : 공동체가 일종의 사회 병리현상에 대한 솔루션으로 부각되다 보니 일단 좋은 것이라고 전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마피아, 학연, 지연 같은 것도 공동체다.

내 생각에는 우리 사회에서 이해관계 없이 친목을 목적으로 순수하게 사람 사귄 기회가 적다 보니 동호회 활동을 찾는 게 아닌가 싶다. 이런 면에서 서울댄스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일 듯하다.

박병성 : 커뮤니티 사업들을 살펴보면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말을 굉장히 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애항심을 키우기 위해 지역 설화를 사람들과 함께 연극으로 꾸미는 사업들도 있던데, 내가 생각하는 커뮤니티는 이보다 더 큰 개념이다.

안은미 선생님을 예전에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개가 반갑다고 꼬리를 흔드는 게 아름답게 보인다. 왜냐하면 거기엔 진정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개가 꼬리를 흔드는 행동을 보고 진정성을 느끼고 공감을 했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는 거다. 공동체성의 핵심은 공감에 있다고 생각한다. 다수의 평범한 관객들이 무대의 움직임 보면서 공감을 할 때, 관객과 실연자 사이에서 공동체성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김정이 : 동의한다. 공동체성은 특별한 게 아니고 미학적으로 진정성과 감동을 느끼고 아름다움에 공명하는 관계다. 이런 질문을 하면 될 것 같다. 서로 미워하는 공동체도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나는 공동체 앞에 무엇인가 붙어 있으면 공동체의 의미를 만들어 낸다고 보는데, 경제공동체라고 하면 경제생활을 함께 누리는 범위의 공동체인 거다. 성남의 경우, 지역공동체라면 지역 안에서 서로 기여하는 게 있는 건가 추측하게 된다.

유상진 : 경험상으로 보면 문화예술 동호회를 지역기반으로 보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취향과 취미가 비슷하면 성남이 아니라 용인, 서울이라도 상관없다.

김정이 :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동체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의 색깔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단일하고 표준화된 개념으로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이다. 하지만 다양성이 인정되는 공동체야말로 궁극의 좋은 공동체이다.

유상진 :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좀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폐쇄성을 가지고 있다. 목적이 비슷하거나 유사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이다. 기존 공동체 담론과는 다르게 보는 개념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김정이 : 폐쇄성 없는 공동체는 없지만 짙어지는 폐쇄성을 희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네트워크 이론에서 유대를 강한 유대(strong tie), 약한 유대(weak tie) 나누듯이, 교류를 통해 일탈이나 돌연변이들이 생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박병성 : 논문을 찾아봤는데 생태주의로 접근하는 관점이 있더라. 공동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가부장 사회, 권위적인 아버지, 고정된 상하 체계 같은 것인데, 생태주의적 접근은 민주적이다. 공동체란 평등하게 서로 배려하고 상보하는 관계라는 거다.

김유진 : 한국에서는 가족 관계든 친구 관계든 워낙 유대가 강해서 문제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계들이 힘의 논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거부감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언론이나 연구자들은 공동체가 무력해졌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공동체가 당연히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다.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 오히려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춤단의 작업이 흥미로웠다. 개인을 모아서 공동체를 만드는 실험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개인의 건강한 시민성이 공공성으로 인식되어야

공동체에 관한 고민이 많아 보인다. 주제를 조금 좁혀서 공공사업 영역에서 어떤 가치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유효할지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김윤진 : 나 역시 공동체성을 다르게 해석할 지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지역적 이슈와 사회적 이슈를 강조하는 것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개인이 춤을 춰서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도 괜찮지 않느냐는 거다. 그런데 서울댄스프로젝트 참여한 사람들만 행복한 것이 예산 쓰임에 있어 타당하냐는 질문을 들은 적이 있다.

춤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아는 과정이다. 자기가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이다. 고통스러움을 아는 사람이 타인의 고통도 알 수 있다. 심각하게 아픈데도 자신의 아픔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자신의 고통을 자각하는 데부터 공동체가 형성되는 게 아닐까 한다. 자기 욕망을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건강한 시민이 되는 과정이고 이것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유상진 : 동의한다. 개인의 만족으로만 멈추는 것이 우리 일의 목적인가? 개인이 만족하면 공동체성이 저절로 생겨나는 건가? 이런 질문을 많이들 던진다. 그러다보니 성남의 경우 사회공헌을 요구하게 되었던 거다.

하지만 요즘엔 자살률을 봐도 그렇고 한국사회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다. 이제는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도 공공의 문제로 봐야한다. 개인 취향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동이 스트레스를 완화해 주거나 해소해준다면 이 역시 공공성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김정미 : 나는 김윤진 감독의 <춤추는 꽃중년>을 보면서 그 아주머니들께서 건강한 시민성을 획득했다는 생각을 했다. 이분들도 처음에는 벨리 댄스처럼 특정 장르의 춤이 아니

라는 점에서 혼돈을 겪었지만 나중에는 춤추는 시민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대부분 춤은 누군가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않나. 내가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욕망되기를 바라는 거다.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을 통해서 시민성이 길러지지 않으니 계속 타자화된 욕망에 사로잡혀 좀비처럼 사는 거다. 자기 자신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내어야 하는데 <춤추는 꽃중년>을 통해서 아주머니들이 이 과정을 경험했다고 본다.

김윤진 : 애초에 서울댄스프로젝트는 풀죽어 있는 시민들을 치유해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참여자들을 포함해 우리 사업 안에서 이 프로젝트의 공공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그게 성남하고 출발지점이 다른 것 같다.

춤을 추다가 갑자기 사회의식을 갖는다는 건 요원한 일이지만, 말랑말랑해지고 문제의식이 날카로워질 수는 있는 것 같다. 춤단의 한 친구는 매일 밤 12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삶을 살다가 대학 게시판에 붙은 춤단 모집 공고를 보고 휴학했다고 한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오고 좋은 곳에 취직해서 장가가는 게 인생의 목표였다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 깜짝 놀랐다. 그런데 춤단에 와서 삶이 다양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다. 이게 핵심 포인트다. 말 그대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배우는 것이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서로 다르게 사는 사람들 속에서 생각이나 가치가 달라지는 경험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다. 서울댄스프로젝트의 참여자들에게는 인생에서 한 때 한 번의 일탈과 같은 경험일 수 있어도 그 일탈이 충분히 공공성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다. 나는 일탈과 일상을 오가는 것이 삶의 균형을 잡아준다고 본다.

문화예술은 생애사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미학적 경험이 개인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아름다운 것을 즐기는 태도가 꼭 시민성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유상진 : 반복되는 익숙한 활동에서 벗어나 신선한 경험을 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 경험이 일상에 영향을 미쳐서 사고나 행동에 변화를 줄 수 있는지는 내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의문이다. 과거 좋았던 한 때의 경험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박병성 : 내가 커뮤니티 댄스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지점은 시선이 외부로 향하면서 아름다움을 소유하려는 것과 자신이 아름다움의 주체가 되어서 자신을 정화하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아서다. 히틀러도 예술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히틀러는 예술을 소유하려는 엘리트주의자였다. 엘리트 예술에서는 관객이 완벽하게 배제되지만 커뮤니티 댄스에서는 주체의 자리로 오면서 아름다움을 만드는 주체가 된다. 이것은 굉장히 다르고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김정이 : 변화를 논할 때 사람의 생애사 전체를 보아야 하는 것 같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나는 어릴 때 숲이나 논에서 불장난하는 것을 좋아했다. 허클 베리 핀처럼 아이들이랑 집도 짓고. 그런 즐거운 놀이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내가 기획하는 것을 보면 그 때 일들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든다.

공연을 보면서 공감하고 눈물을 흘렸던 감동, 길 가면서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문득 느끼는 미적 아름다움 같은 경험이 바로 지금의 삶에 변화를 주기는 어렵겠지만, 언젠가 삶의 맥락과 접속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것이다. 개인의 변화는 무엇인가 투입하면 바로 무엇이 생산되는 공학적 방식으로 볼 수 없고, 공공영역에서 문화예술적인 경험을 계속 제공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김유진 : 인생의 여러 경험들은 필연적으로, 인과적으로 연결된다기보다 어딘가 잠재되어 있다가 우연히 한 경험과 다른 경험이 연결되어 이해가 되는 때부터 영향력이 발생하는 것 같다. 우연한 통찰과 해석이 개인성의 기초를 이루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짧은 것 같다. 1년 단위로 세팅되고, 3개년, 5개년 발전계획 하는 식으로 문화 사업을 만든다. 현실적인 양상과는 관계없이 이상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앞으로 몇 년 후에 어떤 형태의 인간이 나올 것이라는 가정을 하는 것이 인간을 조립하려는 느낌도 주고. 단계 발전 모델이 문화예술정책이나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다.

복제와 확산, 지속가능성의 문제

우연한 감동에 의존한 사업 모델이 보편적으로 설명될 수 있고, 확산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질 좋은 프로그램의 복제와 확산, 지속가능성이란 개념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박병성 : 커뮤니티 아트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강원도에서만 30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하고. 커뮤니티 아트의 매력은 제도화되지 않은 개인의 미적 체험을 발견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를 시행하는 제도는 너무 친편일률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 커뮤니티 아트가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유행처럼 너도 나도 충분한 준비 없이 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커뮤니티 아트를 이끌 지도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교수법이 얼마나 개발됐는지 의문이다.

김유진 :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언어 사용의 문제다. 지금 우리가 ‘자기 욕망’, ‘일탈’ 같은 단어를 좋은 말로 쓰고 있는데, 우린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서로 다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이야기하면 일단 욕망이라는 말 자체를 나쁜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아까 이야기가 나왔듯 공동체라는 말도 굉장한 압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가 이렇게 개념적으로 쓰고 있는 말들이 모두 부정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운 것 같다.

김정이 : 행정 집단에서는 성과에 대한 측정, 가시적 효과성이 숙제다. 행정 입장에서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생애사적으로 접근하자는 주장이 불편할 수 있다. 반대로 개인의 생애사적 측면에서 문화예술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효과를 고민한 적이 없음에도 당연히 내용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다. 행정이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해서 소통의 혼란을 초래한다. 김유진 씨가 말했던 것처럼 언어 개발이 안 되었다고 보고 적합한 언어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본다.

김유진 : 자원을 거대하게 투입하는 사업들은 다 확산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부분 플랫폼이기 때문에 몇 억씩 되는 예산이 들어간다. 행정 입장에서는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물을 수밖에 없다. 축제 모객을 비판하는데,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고루 나누는 방식이 아니면 무엇이 있냐는 거다. 현재 공유되고 있는 확산 노하우는 복제 말고는 없는 것 같다. 프로그램을 매뉴얼로 만들고 프로세스대로 똑같이 실행하는 거다. 여기서 고민이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않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요새 공간에 대한 생각을 한다. 서울댄스프로젝트의 거점 공간 같은 게 있어서 항상 접속할 가능성이 열려 있고, 부담 되는 순간엔 그냥 나올 수도 있는 공간 전략이 있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것 같다.

서울댄스프로젝트를 취재하면서 재미있었던 점이 이 사업은 커뮤니티, 시민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예술가가 중심이 되어 돌아가는 프로젝트로 보였던 것이다. 전담예술가들이 판을 이끌고 간다. <서울무도회>도 축제 기획이라기보다 예술가의 작품 제작을 보는 느낌이었다. 시민이 주도적이 되어야 한다면 시민들을 방임하는 기존의 시민참여 프레임에 좀 지쳐가고 있었는데 시사점이 있지 않은가 싶다.

김유진 : 천편일률적이 되는 것을 비판하면 행정에서는 효율의 입장을 내세우게 된다. 그럼 우리는 비효율적인 집단일까. 잘 모르겠다.

매뉴얼을 만들어 진행하면 효율성은 생기지만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장점인 생명력이 없어진다. 사업의 설계나 실행에서 인간적인 접촉에 대해 계속 고민하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매뉴얼대로 하면 “동원됐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 한 곳 차이로 사람들의 태도가 변한다.

그런데 효율의 문제가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부딪치는 지점은 있는 것 같다. 나는 시의회 감사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사업의 확산이나 성과에 대해 관습적인 지적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종종 상상한다. 숫자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이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가치를 설득할 수 있는 공공적 언어를 개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다. 나 역시 성과 내는 것을 좋아하지만 무엇을 성과라고 규정하느냐가 다른 것이다. 기획감독으로서 확산을 고민하고 있지만 매뉴얼에 의존하는 것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달는 글

더 나은 삶을 향한
사회적 기획

급격한 사회 분위기 변화

기록집을 마감하는 기간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테러 희생자 애도 이미지인 “Pray for Paris”가 온라인 세상을 온통 뒤덮었다.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여파는 극단주의자들을 부활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병리적 현상을 통해 매일 세계가 조금씩 어두워진다는 느낌을 받는 이들이 많다.

한국에서도 큰 사건들이 있었고, 사람들의 의견은 양 갈래로 나뉘어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청년은 일자리가 없고 노인은 세계 최고 수준의 빈곤과 자살률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서로 반목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회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은 이 사회의 미래 존속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다.

서울댄스프로젝트는 시작하는 첫해부터 ‘춤바람’, ‘게릴라’, ‘신나는’, ‘일상을 축제로!’와 같은 에너지 넘치는 이미지를 차용해 왔는데 지난 3년 사이 급격한 사회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이런 사업 정체성이 계속 유효할 것인지 되물을 시점인 것 같다. 사람들은 에너지가 없고, 갈등에 몰입하여 분노를 터뜨리거나 대화를 회피하고 은둔형의 삶을 살고자 한다.

우울한 시대적 흐름 때문인지 한국경제지에서는 2016년 키워드로 ‘집’을 내놓았다.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분석 결과 시간과 돈이 부족하고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안전한 공간인 집에 머물러 한다는 것이다. 집에서 하고 싶은 활동의 1순위는 DIY 같은 창작적 활동이었고 책, 영화, 공부, 음악과 같은 감상 활동이 그 뒤를 이었다.⁸⁾ 이렇게 문화생활이 집 안으로 격리되고 관계가 이미 아는 사람들의 범위로 축소될 때 창조적인 활력을 일으키는 즐겁고 낯선 조우(遭遇)의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질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2015년 하반기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에서도 변화의 조짐을 읽을 수 있다. 심야에 책을 읽는 모임처럼 내면적 성찰을 돕는 문화 기획이 인기를 얻고 있다. 파주 출판도시문화재단에서는 ‘책읽는지하철’과 함께 <지혜의 숲 심야책방>을 진행하였다. 밤새도록 함께 모여 책을 읽는 프로그램이다. 독서하는 사이에 잠깐씩 초청된 게스트와 수다를 떨거나 스트레칭, 단편 영화 상영 등의 부대 행사가 열리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이 책 읽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면 마치 도서관에 온 듯 고요하고 소박하다.

문학동네에서는 <가을 밤의 심야 책방>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루 동안 여는데 신청자가 800명을 넘어섰다. 밤새 광화문 야경을 보고 비치된 문학동네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으며 음식과 작은 공연, 저자와의 대화가 준비된 행사이다.

과장과 공명이 필요한 시민참여 문화예술 사업

8) 한국경제, “내년 키워드 집...”시간·돈 없어 쇼핑·취미 집에서 해결”, 2015.11.09.
<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10839531>

세계적-한국적 차원에서 모두 거대한 변화의 국면에 돌입했기 때문에 대중의 욕구도 출렁이면서 기존 행정 문법을 통해 접근하기가 어려워졌다. 다시 말해, 각 지역 문화재단은 예술을 통해 새로운 파장과 공명을 디자인해야 하는 시기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저성장 시대에 어울리는 개혁을 원한다. 동시에 내면의 안식과 평화를 원한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동기의 공백 상태에서 자발성을 논하는 것은 허무한 일이다. 또한, 힘든 시절 일수록 자유로운 예술적 표현이 예술가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중요하다.

아직까지 정부의 시민참여 문화예술 사업은 고도성장하던 시절의 감각으로 참여자 수나 워크숍 개최 횟수, 축제의 규모 등 직접적인 사업성과를 이루고자 한다. 하지만 기존의 삶의 기준이 해체되어 사람들이 분열하고 있는 지금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적 준거가 자리 잡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어지러운 시절에는 하나의 솔루션을 당장 대안 솔루션으로 교체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부터는 간접적이고 암묵적이며 상호적인 영향에 사람들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물수제비를 뜨면 물결이 파장을 일으키며 더욱 큰 원을 그리듯 동기를 높이고 에너지가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일은 필수적이 되어갈 테다.

영화 사운드 중 앰비언트 사운드(ambient sound)라는 것이 있다. 주인공 목소리와 테마 곡 등 우리가 잘 인식할 수 있는 소리가 있는 반면, 없어선 안 되지만 눈치채기 어려운 소리도 있다. 앰비언트 사운드가 없는 영화 장면은 현실성이 사라지면서 기이한 적막에 빠지게 된다. 이 소리는 인위적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소리를 녹음한 것인데 거리 촬영 시 자동차 소음, 광장의 소음, 산에서의 새소리 같은 것이다.⁹⁾ 앰비언트 사운드는 영화 산업이 발달할수록 그 역할이 더욱 부각된다고 한다.

마치 이 앰비언트 사운드와 같은 입체적 현실성이 정부 사업에도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사람들을 친절일률적인 답안으로 이끌고 가는 리더십을 좇을 게 아니라 사람들 뒤에서 사실적 배경으로 머무르기, 사람들을 둘러싼 자연 입체 사운드로 존재하기.

인지적 충격 대신 연결 가능성

김윤진 기획 감독은 2015년 마지막 내부 평가회의에서 앞으로 서울댄스프로젝트가 ‘게릴라’를 버리자는 의견 제시를 하였다. 기습과 충격의 기법을 사용하기보다는 사람들 간 접촉에 더욱 집중하면서 순간적인 연결 가능성을 다양하게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기록팀은 기획 감독의 의견에 공감한다. 전체적인 조망에 주의를 기울이되 고립된 개인과 개인이 잠시 손잡을 수 있는 작은 시공간을 많이 열어내는 것. 이것이 새로운 미션이다.

<끝>

9) 영화사전, 2004. 9. 30., propaganda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49732&cid=50337&categoryId=50337>

2015년 서울댄스프로젝트 연구기록집
춤추는 시민을 기록하다

발행일 2015년 11월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www.sfac.or.kr
기획·진행 (재)서울문화재단 서울댄스프로젝트
취재·집필 PM 김유진 / 현승인 / 이초영
사진 정경일
디자인 신현나

© 본 저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재)서울문화재단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